

- ▶▶ [이달의 인물] 앨범 발매, 경남정보고 3학년 정상우
▶▶ [청소년 뉴스] 진주시,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 설치 완료
청소년 '결석 시위' 기후 위기 중단해야
美 '전자담배 폐질환' 공포...사망자 13명으로 늘어
▶▶ [학교소식] 동명중 학교스포츠클럽대회 2관왕 달성
대아고 김도혁 클라이밍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
진주중·진주고 등곳길 '학교폭력 멈춰' 캠페인
진주기계공고 펜싱 명문학교 '우뚱'
▶▶ [맷칸년맷반] 대아고등학교 2학년4반편
▶▶ [맷칸년맷반-신청] 진주제일여고 2학년5반편
▶▶ [특집]기후 위기의 직접 당사자이자 피해자는 바로 청소년!
▶▶ [19금 토크] 자위는 해도 되지만 자위용품은 19금?
▶▶ [우리학교에 있다] 아름다운 교정 그리고 최초의 학교도서관
▶▶ [이슈-필통토론방] 하우두유돌, 당신의 유두는 안녕하십니까?
▶▶ [현장취재] 청소년 물품 기증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 돕기 행사
▶▶ [필통뮤직차트] 청소년들이 즐겨 듣는 드라마OST
▶▶ [동아리탐방] 경상사대부고 과학동아리 개마무사를 만나다
▶▶ [반보드 Chart] 진주고 1학년 5반 VS 제일여고 1학년 8반
▶▶ [I'M FASHION PEOPLE] 오후연(진주제일여고 1학년)
▶▶ [SNS 맛집 검증] 요즘 난리 난 육즙폭탄 대창덮밥!
▶▶ [JOB을 잡아라] 공인중개사 강재훈님을 만나다
▶▶ [씨네통통] 나쁜 녀석들: 더 무비
▶▶ [나의펫&우리켓] 이게 실화? 육지거북과 타란툴라라니...
▶▶ [대학생이 말하는 학과이야기] 우송정보대학 애완동물학과를 찾아서
▶▶ [필통번역실] 그린데이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 [취재수첩] 양심 없는 급식 도둑, 이건 아니잖아요!
시험 중 문제 수정,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여성적 어조와 남성적 어조? 그게 뭘데?
조별 과제 무임승차,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사라진 우산, 학생들 양심만 탃하나?
짜요를 3번이나? Clean 식판 실천합니다!
학교 과제물에 숨겨진 차별, 공정한가?
▶▶ [필통우체통] 독자글모음
▶▶ [필통네모로직] 9월호 문제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필통은 청소년들에게 공익적 가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필통은 청소년문제를 극복하고 대안을 만들어 갑니다.
필통은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고 행복의 가치를 나눕니다.

[후원신청방법]

필통 홈페이지 www.ifeeltong.org 에서 접수해 주시거나 **전화**로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 070-8628-1318

CMS 후원계좌 : 경남은행 516-07-0197887(예금주/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필통)

후원회원 등록시 매월 지정된 날짜에 약정하신 금액이 인출 됩니다.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행)

2019년 한 해도 진주 아이쿱 생협은
필통과 함께 합니다.

진주 icoop 생협

필통을 후원합니다.
필통을 진주의 자랑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리적 소비를 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달의 인물] 앨범 발매, 경남정보고 3학년 정상우

노래는 제가 살아가는 힘이죠 아티스트로 만날 그날을 기대해 주세요

Q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나인어플라이드뮤직과 폴투컴퍼니가 함께 기획한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 객원보컬의 기회를 얻게 되어 '일기'라는 곡으로 싱글앨범을 낸 진주 정보고등학교 3학년 정상우라고 합니다.

Q 가수의 꿈을 꾸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저는 어릴 때부터 노래 듣는 것과 부르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혼자 가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 주변에서 노래를 잘 부른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노래를 즐겨 듣다 보니 저도 다른 가수 분들처럼 멋진 무대에

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노력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Q 가수의 꿈을 가지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나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A 일단 부모님을 제외하고 친구들과 지인 분들은 저를 응원해주시고 원가를 위해 노력하는 저의 모습을 되게 좋게 봐주셨어요. 반면 부모님께선 많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시는 게 당연하죠. 가수나 보컬트레이너로 성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ㅎㅎ. 그래도 이번 앨범을 발표 한 후 부모님께서 한 번 열심히 해보라며 응원해주셨어요. 더 열심히

Q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나요?

A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해 본적 없지만 정말 힘든 시기가 많았죠. 노래를 아무리 연습해도 실력이 늘지 않을 때나 뚜렷한 목표가 없었던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도 앨범을 낸 후에는 더 많은 음악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진 것 같아요. 요즘은 고3이다 보니 대학입시를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가장 스트레스긴 하죠.

Q 요즘 가장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노래가 궁금합니다.

A 가수 이준호의 '나만'이라는 곡이 가장 좋았어요. 저랑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했고 또 노래의 구성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Q 롤모델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A 가수 정승환씨요. 정승환씨의 발성이 너무 좋고 잘생기기도 하셨고 ㅎㅎ..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이 너무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이세요.

Q 지금까지 노래하면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A 제가 앨범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학원 원장님과 부원장님, 소속사 대표님, 그리고 절 묵묵히 응원해주신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죠. 무슨 식상한 시상식 멘트 같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Q 가수의 길을 위해 지금은 어떤 노력을 하나요?

A 평일에는 학교를 마친 후부터 음악학원에서 10시까지 연습하고 주말엔 아무래도 학교를 안가다 보니까 하루에 평균 7시간 이상은 연습을 합니다. 연습 전에는 항상 피아노 스케일을 치면서 목을 풀어요. 이후에 연습곡을 반복해서 듣고 노래를 부르면서 호흡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곡의 다이내믹을 살리기 위해 항상 연습, 연습이죠.^^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Q 노래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요?

A 노래는 누군가를 위로해주기도 하고 즐겁게 해주기도 하잖아요. 힘이 되기도 하구요. 참 멋진 일이지요. 또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은 가사에 행복이나 슬픔 등 자신의 모든 감정을 전달 할 수 있다는 게 비교할 수 없는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 잘 부르면 이성의 관심을 끌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Q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A 현재로서는 수도권대학 실용음악과에 진학하는 것이 제 목표예요. 대학졸업 후에는 무대에 많이 서서 가수 정상우로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또한 확실한 건 앞으로의 제 삶은 음악과 함께하는 것이겠죠. 노래를 하던 음반작업을 하던 보컬트레이너를 하건 음악관련 일을 할 거예요.

Q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또 다른 앨범으로 저의 목소리를 들려 드리고 싶어요. 언젠가 아티스트로 만날 그날을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항상 저를 이끌어주시는 나인어플라이드 원장님, 부원장님, 대표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가수로서 더욱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일에는 학교를 마친 후 10시까지 연습,
주말엔 평균 7시간 이상은 연습을 합니다.
연습, 연습, 연습... 그것이 지금 제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겠죠."**

서서 관객의 환호와 박수를 받는 기분을 느껴 보고 싶었어요. 고등학생이 된 후 가수에 대한 꿈이 더욱 확실해졌고 현재의 음악학원을 다니면서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Q 이번에 발매한 앨범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A 꿈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론 가슴 뛰는 설레는 행복이지만 때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올 때도 있잖아요. 이 앨범의 타이틀곡인 '일기'는 가장 어둡지만 가장 빛나는 10대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별들을 응원하는 내용으로 많은 공감과 위로를 주는 노래입니다.

Q 예고로 진학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데?

A 고민은 있었지만 가수라는 꿈을 꾸게 된 게 고등학교 원서접수 이후여서 예고가 아닌 정보고에 가게 되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편입 기회가 있긴 했는데 음악학원 다니면서 연습하다 보니 굳이 예고로 전학 갈 필요가 없

히 해야죠.

Q 앨범을 발매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땠나요?

A 이번 앨범이 저희 학원이랑 소속사가 손잡고 만든 앨범이잖아요. 저희 학원에 다니는 연습생들에게 이 노래를 한 번씩 부르게 해서 가장 노래와 잘 맞는 사람에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방식이었는데, 마침 제가 부른 게 마음에 드셨는지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앨범 발매가 순탄하진 않았어요. 녹음실에서 살다시피 했죠. 늘 새벽까지 오케이 사인이 날 때까지 똑같은 부분을 수십 번, 수 백 번 계속해서 다시 불러야 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뜻 깊은 경험이었고 저에게 생소했던 작업이었기에 많은 걸 배우게 되었어요.

Q 앨범이 나왔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A 제 목소리가 담긴 앨범이 나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꿈만 같았어요. 그 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일기 라이브 영상 촬영 모습〉



〈나인어플라이드 콘서트홀에서 공연〉



〈앨범 녹음 작업 하는 모습〉



[취재/ 정병훈(진양고2), 강인원(제일여고1) 기자]

진주시, 전 시내버스에 무료 공공와이파이 설치 완료

‘PublicWiFi@BUS_Free_노선번호’를 선택한 후 사용

진주시가 운행 중인 시내버스 232대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5월 1차 사업으로 시내버스 32대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운영 중이었으며 이어 2차 사업으로 지난 8월에 추가 시내버스 200대에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예비차를 제외한 운행 중인 대부분의 시내버스에 무선 AP가 설치돼 시내버스 이용객이 통신비 부담 없이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2차 사업 역시 진주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구축하고 통신 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 통신사는 KT로 선정돼 추진 중이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는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사용 가능하며 와이파이 목록에서



‘PublicWiFi@BUS_Free_노선번호’를 선택한 후 사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또한 보안이 강화된 Secure 와이파이 사용도 가능하고, 와이파이의 설정 및 사용방법은 차량 내 안내 스티커와 시 홈페이지의 안내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으로 미비점 및 보완 사항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지역 확대

남강둔치·진양호공원·차 없는 거리 등 공공장소에 확대 구축

진주시는 지난달 전체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이어 남강둔치, 진양호공원, 차 없는 거리 등 공공장소에 시민이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지역을 확대 구축했다고 9월26일 밝혔다.



최초 접속 시 와이파이 목록에서 'Jinju_PublicWiFi'를 선택하면 특정한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곧바로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진주시는 연차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0년에는 남강둔치(상대동~하대동), 주요 체육시설, 전통시장 등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진주시와 KT, 서경방송은 지난 3월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구축비 공동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2019년 사업대상지로 진양호공원 일대, 남강둔치(칠암동~망경동, 신안동~평거동), 중앙동 지하상가 및 차 없는 거리, 청소년 밀집지역(경상대학교·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인근 지역, 하대동 탐마트 인근 번화가) 등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운영 중이다.

청소년 결석 시위... 기후 위기 중단해야

학교 결석하고 광화문 모인 청소년들

“기후위기, 지구 미래가 없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구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안전하고 깨끗한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청소년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현재의 환경 위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학교에 가지 않은 채 개최한 이른바 '결석 시위'다. '청소년 기후 행동' 주최로 9월27일 서울 광화문 인근 세종로소공원에서 열린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에 참여한 청소년 500여명(주최 측 추산)은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해 정부와 어른들이 힘써 달라고 입을 모았다.



평가한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무책임한 기후 정책으로 학교에 있어야 할 청소년을 거리로 내몰았다"며 '무책임 끝판왕 상'을 수여하는 퍼포먼스도 연출했다. 청소년들은 현재의 기후 상황이 '국가적 비상사태'임을 정부가 인정하고 제도 및 정책 전반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회를 끝낸 이들은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한 뒤 청와대 측에 '기후 위기 대응' 성적표와 상장을 전달했다.

집회를 준비한 경기 용인외대부속고등학교 1학년 김도현 양은 "기후 위기 시대에 태어나서 앞으로 오래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이 여기 모였다"면서 미래에 대한 위기감, 절박함을 알리고자 시위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들은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척도를

美 전자담배 폐질환 공포 사망자 13명으로 늘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 있는 것으로 조사된 폐질환이 총 805건으로 증가했으며 13번째 사망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9월28일 발표했다. 지난주 CDC가 전자담배와 관련된 530건의 폐질환과 7건의 사망사례를 조사중인 것으로 발표한지 일주일여 만에 많은 사례들이 추가로 보고됐다.



아직까지 CDC는 보고된 폐질환들과 관련 있는 특정 전자담배 상품에 대해선 발표할 바가 없다. 그러나 보고된 사례들 중 다수가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을 함유한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위험성이 증명된 비타민 E 아세이트(Vitamin E acetate)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월 25일 미국 내 전자담배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줄 랩스(Juul Labs)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증가하면

서 미국 내 모든 광고 중단과 함께 CEO를 교체할 발표했다. 지난 9월 24일까지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사망사례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일리노이, 인디애나, 캔자스,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주리, 오리건 총 10개 주에서 보고됐다. 또한 25일 메사추세츠주는 뉴욕주와 미시간주에 이어 4개월간 모든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김치녀, 맘충 청소년 10명 중 7명 혐오표현 경험 있다

청소년 10명 중 7명이 '김치녀', '맘충' 등의 혐오 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혐오 표현을 사용한 경험도 성인의 두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에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68.3%는 혐오 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여성(63.0%)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이 가장 많았다.

혐오 표현을 접한 청소년 응답자의 82.9%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커뮤니티, 유튜브, 게임 등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접했다고 응답했다. 청소년의 과반수가 학교(57.0%)에서나 친구(54.8%)로부터 혐오 표현을 가장 많이 경험했으며, 혐오 표현 사용자가 학교 선생님이든 경우도 17.1%나 됐다. 혐오 표현을 접한 사람 중 82.9%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22.3%나 됐다. 청소년 중 혐오 표현을 직접 사용한 경험은 23.9%로 성인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로 혐오 표현 내용에 동의하기 때문(60.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남들도 쓰니까(57.5%), '재미나 농담'(53.9%) 순이었다.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무상 생리대 월세낭비 vs 필요

서울의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무료로 주자는 조례안이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찬성 측은 "청소년 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반대 측은 "불필요한 월세 낭비"라 반박하고 있다.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 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례안은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이 지난달 7월31일 발의했다. 현재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19조 6항에서 '빈곤'한 여성 청소년에게 한해 생리대를 지원하게끔 돼 있다. 2016년부터 시작한 정책이다. 그런데 이를 바꿔 모든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연간 약 411억원의 예산이 든다. 권 의원은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건강하고 안

전하고 자유롭게 월경 기간을 보내는 것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생존권"이라며 "그들의 몸이 사회구성원으로 존중 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 강조했다.

'무상 생리대'를 둘러싼 찬반 논란도 거세다. 찬성 측은 "저소득층이 아닌 청소년들에게까지 무상으로 생리대를 주는 건 월세 낭비"라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생리대를 지원받을 만큼 가난하단 걸 증명해야 하는 선별 지원 방식이 수치를 준다"고 지적한다. 그런 까닭에 보편적 복지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스쿨미투 가해자 43%, 솜방망이 처벌 받고 학생 가르쳐

성희롱·성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 중 43.3%가 학생을 다시 가르칠 수 있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교육부의 '2016~2019 초·중·고 학교급별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578명) 중 250명이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징계 중에서는 견책 75명, 감봉 62명, 불문경고 2명이었다. 견책 처분을 받은 교원은 학교장으로부터 잘못에 대해 회개하도록 훈계를 듣고 6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되는 인사상 불이익만 받는다. 정직 강등처럼 중징계지만 교직생활을 이어가는 데 문제가 없는 처분을 받은 사람은 111명이었다. 파면 해임 처분으로 교단에서 퇴출된 교원은 328명이었다.

연도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43명, 2017년, 2018년 169명에서 올해 상반기는 이미 95명으로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징계 교원이 최근 3년간 285명으로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67명, 2017년 76명, 2018년 92명, 2019년 상반기 50명이었다. 교원 성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578건 중 성추행이 280건으로 가장 많고, 성희롱 192건, 성매매 51건, 성폭행 비위(공연음란, 음란물 음화 제작배포, 카메라 이용 촬영) 37건, 성폭행 18건 순이었다.

동명중 학교스포츠클럽대회 2관왕 달성

지난 9월 20일과 21일에 걸쳐 거제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13회 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진주동명중학교가 남중부 배드민턴과 탁구 종목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탁구는 이번 대회 우승까지 도대회 4연패와 전국대회 3년 연속 3위권 진입의 압도적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데 탁구를 사랑하는 진주동명중 도덕선생님의 지도와 진주시 탁구협회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해마다 값진 결과를 일궈내고 있다.

배드민턴 종목 또한 결승전까지 박빙의 승부를 펼쳐 보는 이의 가슴을 졸이게 했다. 배드민턴 동호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부모님



들의 열성적인 후원 덕에 작년에 이어 2연패라는 좋은 결과를 낳았다.

진주기계공고 펜싱 명문학교 우뚝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펜싱부는 지난 9월2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57회 전국남·녀 중별 펜싱선수권 대회'에서 다시 한번 플뢰레 고등부 단체전 동메달을 차지했다. 지난해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동메달을 차지한 바 있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펜싱부는, 지난 4월 제31회 한국중고펜싱연맹 회장배 동메달을 획득한 데 연이은 동메달 획득으로 한껏 사기가 충만해졌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감독과 코



치, 선수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더욱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불굴의 의지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

경진고 초·중 드론대회 개최



경진고등학교는 지난 9월21일 교육부 선정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이하 매직)의 일환으로 경진고 강당에서 '제3회 초·중학생 드론 조종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교육부 매직사업에 선정된 경진고가 초·중학생 및 지역민들에게 특성화고를 홍보하고,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분야인 드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했다. 행사에서는 경진고 드론 동아리 학생들의 시범 공연을 시작으로 진주 시내 15개 초·중학교에서 24명이 출전하여 드론 조종 실력을 겨루었다. 초등부 동상은 선학초등학교와 봉원초등학교, 은상은 금산초등학교, 금상은 동진초등학교 학생이 수상했다. 중등부 동상은 중앙중학교와 제일중학교, 은상과 금상은 삼현여중학교 학생이 수상했다.

진주중앙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권 보호 서약식 개최



진주중앙고등학교는 교권 존중 풍토 조성과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8월 29일(목)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권 보호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 서약식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는데, 1부에서는 학생자치회 임원 19명, 학급 반장 16명, 교장, 인성안전부 교사들이 교육활동 지킴이 T셔츠를 착용하고 서약식을 개최했다. 학생자치회 임원 19명 및 학급 반장 16명을 비롯한 1,2학년 학생들 전원은 교육활동 지킴이 선언문을 들고 교육활동 지킴이 T셔츠를 착용한 교장, 인성안전부 교사들 앞에서 8월 24일 확정 발표된 교육활동 지킴(T.S.지킴) 선언문을 서약했다. 2부에서는「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단계별 유의사항」,「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세부 절차」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학생 인권과 교권의 이해」,「교권과 학습권」,「교권 침해와 교권 보호」등에 관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권 보호 연수를 실시하였다.

선명여고 배구부 정호영 신인 1순위로 KGC인삼공사 행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참가했던 정호영(선명여고)이 전체 1순위로 여자 프로배구 KGC인삼공사의 유니폼을 입었다. 정호영(선명여고)은 9월 4일 서울 서대문구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배구연맹(KOVO)

대아고 김도혁 클라이밍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

진주 대아고 김도혁(3학년·사진) 군이 스포츠클라이밍대회 볼더링 부문에서 청소년 국가대표가 됐다. 김 군은 지난 9월8일 대한산악연맹 주최로 광주에서 열린 '제28회 회장배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및 2019 아시아 유소년선수권대회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남자 주니어 볼더링 부문 3위를 차지, 청소년 국가대표로 뽑혔다. 볼더링은 5m가량 벽에 다양한 형태로 설치된 홀더를 잡고 오르며 제한 시간 내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경기다. 김 군은 이번 대회에서 콤바인 부문(난이도·스피드·볼더링)에서 4위를 기록해 청소년 국가대표 상비군으로도 선발됐다. 김도혁 선수는 오는 11월 중국



충칭에서 열리는 아시아스포츠클라이밍대회 콤바인 부문 또는 12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유스챔피언십대회 볼더링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다.

진주고 가온누리반, 경남교육감기 장애학생 체육대회 조정 휩쓸다

지난 9월20일 창원시 일원에서 열린 제6회 경남교육감기 장애학생 체육대회 조정부문에서 진주고의 가온누리반은 작년에 이어 개인전과 단체전을 모두 휩쓸어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올해 5월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 조정 단체 동메달을 석권했기에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었고 역시 명불허전 진주고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 경남도교육청에서 주최하고 경남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경기단체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는 수영, 육상, 탁구 등 육성종목과 디스크골프, 배드민턴, 볼링 등 보급종목 등 총 17개 종목에 1800



여명의 선수단이 참여했다.

한 후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거쳐 산업현장에서 재교육 없이 실무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새로운 자격제도이다. 경남자동차고등학교는 지난 2017년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부터 교육부 과정평가형 자격운영 연구학교로 지정돼 활동하고 있다.

삼현여중,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배구부 우승



진주삼현여자중학교 배구부가 '2019년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배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삼현여중은 지난 9월20일 거제 일원에서 개최된 2019년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배구대회에서 진주시 대표로 출전해 거제 중앙중학교와 결승을 벌여 2-0으로 승리,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삼현여중은 예선전 포함 단 한세트도 내주지 않은 실력을 뽐내며 상대팀을 압도했다. 앞서 삼현여중은 예선에서도 거창여중을, 준결승전에서는 양산 신주중학교를 2-0, 차례대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총 3개 팀을 상대하면서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은 압도적인 실력으로 이뤄낸 우승이어서 선수와 학생 지도교사의 기쁨이 배가됐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며 해맑게 웃었다.

2019~2020시즌 여자부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순위로 KGC인삼공사의 지명을 받았다. 키 190cm의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진 정호영은 새 시즌 프로 무대에 데뷔할 여고부 선수 중 최대어로 평가됐다. 정호영은 올해 남녀 중별선수권대회에서 선명여고를 우승으로 이끌고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지난해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참가했던 정호영은 레프트와 라이트, 센터 등 포지션을 두루 소화할 수 있고, 데뷔 첫해 경기에 투입될 수 있는 즉시 전력감으로 인정받고 있다

경남자동차고, 우수직업교육 훈련기관 금상 수상



경남자동차고등학교는 올해로 23회를 맞이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직업능력의 달' 행사에서 NCS 기반 우수직업교육훈련 경진대회 부문 금상(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17년부터 NCS 기반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의 자격취득과 함께 취업을 연계한 진로지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결과였다. 경남자동차고는 3학년 산업설비과 학생 18명이 국가기술자격 과정평가형(융합기능사)에 응시해 전국최초 100% 합격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국가 직무능력표준(NCS)으로 설계된 교육과 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재학 중 직업기초능력과 실무과목을 집중이수(672시간)

청소년 물품 기증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 돕기 행사

진명여자중학교, 동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름다운 하루' 열어

'아름다운가게'와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이 동명고, 진명여중 학생들과 함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아름다운 하루' 행사를 열었다. '아름다운 하루'는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라는 슬로건으로 물건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도모하여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세상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인 아름다운가게의 기획 프로그램이다.

진주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이번 '아름다운 하루'는 중고물품을 기증받아 판매하고, 수익금을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에게 전액기부하는 행사다. 판매는 9월21일 하루 동안 아름다운가게 진주시청점에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진명여중과 동명고등학교, 그리고 필통기자단 학생들은 지난 8월26일부터 기증물품을 모으기 시작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의류, 도서, 가방, 잡화, 주방

용품, 소형가전 등 자신들의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물품들을 직접 학교로 들고 와서 기증했다.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수거를 했고 기증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분류 및 세척 등을 거쳐 판매하게 된 것이다.

이번 행사는 아름다운 가게가 필통에 제안을 했고 필통 학생기자단에서는 위안부피해 할머니 돕기라는 목적을 가지면 더 의미가 있고 청소년들의 참여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기획하게 되었다. 진명여자중학교와 동명고등학교가 적극 참여 의사를 밝혔고 학생들뿐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높은 관심을 나타냈었다.

아름다운 하루 판매수익금 전액은 진주동명고, 진명여중, 그리고 필통의 이름으로 위안부피해 할머니 후원금으로 보내졌다.



〈9월21일(토) 아름다운하루 행사를 시작하며, 김태규(진명여중) - 문형준(동명고) 교장선생님〉



〈MBC 경남아 사랑해 방송장면 중에서 - 박병규(필통기자대표), 김효진(진명여중2), 장우혁(동명고1), 신유철, 박태홍(동명고2) 시계방향〉

진주중·진주고 등곳길 학교폭력 멈춰 캠페인

진주교육지원청은 9월 18일 오전 등교시간 진주중, 진주고 통학로에서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하반기 학교폭력 멈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진주교육지원청, 진주시청, 진주경찰서, 진주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와 진주중, 진주고 학생·교직원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이 많이 등교하는 교문에서 '학교폭력 멈춰! 언어폭력 OUT', '폭력은 범죄', '감싸주는 우정', '집단따돌림 OUT' 구호 제창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홍보물을 학생들에게 나눠 주었다. 특히, 진주고등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 진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교직원이 모두 교문에 나와 하이파이프로 등교하는 학생을 환한 미소로 맞이하였다. 학교폭력을 없애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도전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이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승강기안전공단 진주남중 씨름부 후원

진주남중학교 모래판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지난 9월16일 진주혁신도시 이전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노사가 진주남중 씨름부 선수를 만났다. '전국 최고 씨름 명문'이라는 명성을 잇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이날 승강기안전공단 노사는 진주남중과 사회공헌 기금 후원협약을 맺었다. 공단은 체육꿈나무 육성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의미가 남다르다. 임직원이 급여 끝잔때기(받은 급여에서 1만원 단위 미만 금액을 후원금으로 모으는 것)를 통해 마련한 후원금이다. 공단은 1년에 4회씩, 분기별로 도움을 줄 계획이다. 승강기

안전공단의 방문에 씨름부 관계자들도 놀랐다. 외부 기관에서 후원하겠다고 찾아온 것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진주남중이 씨름 명문이긴 하지만 씨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떨어지면서 좀체 후원이 없다.

진주동중 축구부 저학년 축구대회 3위

진주동중학교 축구부 2019년 8월 10일부터 8월 27일까지 경북 울진군에서 치러진 "제55회 추계 한국중등(U-15)축구연맹회장배 저학년 축구대회" 백호그룹 3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예선 및 본선 토너먼트를 치른 진주동중학교 축구부는 8월 23일 치러진 4강전에서 강호 서울 한양중에 전반 10분 만에 선제골을 허용하였지만 학생들이 할 수 있다는 정신력을 발휘하여 팽팽한 경기를 펼쳤다. 후반전 들어 개개인의 능력과 선수들 간의 협력이 조화를 이루며 월등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후반 10분경 PK찬스가 왔지만 아쉽게 실축하며 동점의 기회를 놓치며 종료 휘슬이 울릴 때 까지 만화극이 터지지 않아 1:0으로 패하여 3위에 그쳤다. 이로써 진주동중학교 축구부는 2017년 창단이후 3년 동안 전국대회에서 3번의 입상을 거두는 성과를 이루며 명문 축구팀으로 발전하고 있다.

안전이 곧 행복, 전국 교육청 첫 '학생안전체험교육원' 건립

전국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이 진주 옛 문산중학교에 건립되어 문을 열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은 9월24일 오후 2시 교육원의 야외주차장에서 개원식을 열었다.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은 총사업비 238억 원을 들여 옛 문산중학교 터에 건축면적 6214㎡,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7개 교육관과 33개의 교육장을 갖췄다. 교육청 단위 전국 최초로 건립된 것이다. 교육청은 지난 7월 초부터 준공 후 약 2개월간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800여 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기틀을 잡기 위해 시범운영을 해왔다. 이날 개원식에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조규일 진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학교안전담당관, 학생, 학부모, 지역민 등이 참여했다.

진주기공, 명장에게 듣는 특강

진주기공공업고등학교는 용접 명장을 초대해 학생들의 취업마인드 함양과 인성교육을 위한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은 지난 9월16일 오후 2학년 학생 180명 대상, 경남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렸다. 진주기공은 학생들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전문기능 기술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뜻에서 매년 경남도교육청 및 총동창회 소속 장학회에서 주관하는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에 근무하는 김일록 대한민국 용접 명장(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뿌리기술 초청전문가, 노동부 신지식인)이 '나의 선택 나의 길'이라는 주제로 60분 동안 이어갔다.

진주시, 등하교 통학 노선 늘린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9월16일 오후 6시 30분 진주교육지원청 심낙섭 교육장, 직원 등과 함께 진주시 교육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시장은 진주시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주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진주시는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등 교육 분야에 7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학부모 부담경감 및 교육복

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방학기간 사립유치원 돌봄 보조인력, 유치원 간식비,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지원 등 다양한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내년 3월 대곡중학교의 혁신도시 이전으로 기존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혼잡이 예상되고 이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이를 해소하고자 시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통학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다. 진주시에서는 운수업체와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9월 중에 협의를 완료하고 오는 11월 통학 노선을 신설 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남 학교폭력 35% 언어폭력 22% 따돌림

올해 상반기 도내 학교 폭력 실태조사에서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이 소폭 늘고,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교육청은 8월27일 전국 시·도 교육감 공동으로 시행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도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NEIS 대국민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으로 시행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989개 학교에 다니는 학생 26만 5002명이 참여했다. 참여율은 94.7%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집단따돌림(22.8%), 신체폭력(9.0%), 사이버폭력(8.1%), 스토킹(7.7%), 금품갈취(7.1%), 강요(6.0%), 성폭력(4.2%)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 경험 장소는 교실 안(31.9%), 복도(15.2%), 운동장(9.8%), 급식소 및 매점(9.2%) 등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 시간은 쉬는 시간(37.6%), 점심시간(18.3%), 하교 이후(11.9%), 수업시간(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주고
1학년 5반

VS



제일여고
1학년 8반

[반보드 Chart] 남,여학교 반 미니설문조사

Banboard

<필통 반보드Chart>는 매일 남녀 고등학교 각 1개반을 선택하여 청소년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는 코너입니다. 정확한 조사나 통계는 아니지만 요즘 청소년의 생각을 엿볼 수 있고 남녀 학생들의 작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재미있는 코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호에

는 동명고등학교 2학년 6반 21명의 남학생들과 선명여고 2학년 2반 20명 여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질문에 대해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솔직한 답변, 남녀의 확실한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 등에 집중하면 더욱 재밌게 이번 달 반보드 차트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Issue 어떻게 생각해?

구혜선-안재현 사건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해?



진주고등학교와 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안재현을 지목한 학생들은 구혜선이 SNS에 업로드한 글들의 파급력이 굉장했다고 주장했고, 구혜선을 지목한 학생들은 부부간의 사적인 일들을 일방적으로 SNS에 올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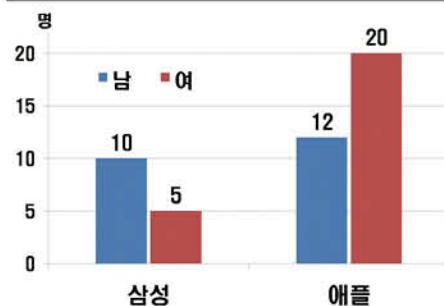
삼성과 아이폰, 너의 선택은?

거의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이제 폰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스마트폰은 청소년들의 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들의 일부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아이폰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이폰은 가격 부담이 크고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선택에 있어서 부모님들의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아이폰 외에도 다양한 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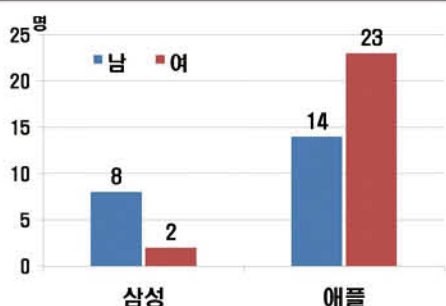
다양한 제조사의 스마트폰이 존재하지만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아이폰과 삼성스마트폰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다양한 항목에서 두 회사에 대한 평가 결과가 어떨지, 또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생각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다.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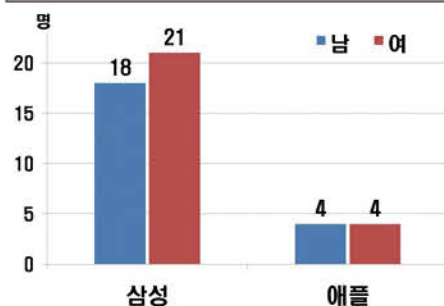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디자인이다. 사람들도 첫 인상이 좋듯이 디지털 기기에도 첫인상 즉 디자인이 중요하다. 아이폰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애플 특유의 사과 로고가 예쁘다. 디자인은 소비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 의견이 많이 갈린다. 삼성의 다양함이 선택의 폭을 넓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삼성에 비해 애플의 디자인이 더 호감도가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카메라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다. 그렇다 보니 카메라의 성능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사람을 찍거나 항상 간직하고 싶은 장면 또는 장소가 있을 때 사용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공유하기 때문이다. 셀카를 찍었을 때 삼성보다 애플의 카메라가 더 좋다는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다. 학생들 사이에선 애플의 기기가 화질도 선명하고 어떤 필터를 써줘도 잘 어울린다는 평가들이 대세다.

서비스



스마트폰 선택에서 AS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서비스는 지원 서비스 및 호출 서비스이다. 아이폰은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수리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수리기간 또한 길어서 지원 서비스 면에서는 삼성이 비교우위를 차지하는 것 같다.

배터리



스마트폰을 논할 때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중요한 배터리이다. 배터리 성능이 좋으면 그만큼 휴대폰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아이폰은 기온이 내려가면 꺼지는 일도 생기고 평소에 삼성에 비해 배터리가 더 빨리 닳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

삼성 갤럭시10 있지만 애플 아이폰11 없는 5가지 최신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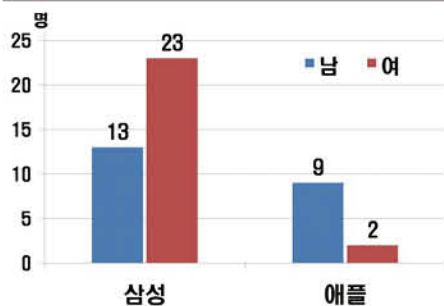
애플은 지난 10월 소개한 아이폰11 라인업에 초광대역 카메라, 나이트 모드, 아이폰11 프로에 급속충전기 같은 핵심 기능을 추가했다. 그러나 이 최신폰에는 여전히 몇 가지 현대적인 기능들이 빠져 있다. 지난 8월20일 나온 삼성 갤럭시노트10 시리즈에는 들어가 있지만 지난 9월10일 발표된 아이폰 11에는 없는 최신 기술 5가지는 'USB-C, 노치없는 화면, 화면내장형 지문 센서, 역무선충전 기능, 5G 통신'으로 요약된다.

애플은 아이폰에 특정 기능을 느리게 채택할 수 있지만 결국 특정 기능을 추가할 때는 대개 의도적이었다. 즉 애플은 역사적으로 어떤 기술이 완전히 개발되고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기술들을 추가해 왔다. 이 때문에 아이폰 11은 새로운 기능을 대신하는 중간 과정의 제품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애플은 아이

폰 11에 예상대로 초광대역 카메라와 낮은 조명 상황에서 더 나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새로운 야간 모드 같은 기능들을 제공했다. 그리고 적어도 아이폰 11프로에는 급속충전기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USB-C 포트와 매끈한 초고속 디스플레이와 같은 다른 기능들이 아이폰 11에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애플이 이같은 최신 기술들을 아이폰11시리즈에 제공하지 않은 이유는 이들 중 상당수를 아직 받아들이기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애플이 이런 기능을 추가할 만큼 편안함을 느낄 때 아이폰은 현재와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이 때문에 아이폰 11은 새제품의 대체물처럼 느껴지는 가운데 애플이 아이폰에 현대 스마트폰의 핵심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일 수 있다.

성능



성능은 기기의 속도나 휴대폰이 지닌 성질이나 기능인데, 이것 또한 많아야 휴대폰이 비싸고 좋다고 할 수 있다. 아이폰 기기에 비해 삼성기기의 속도가 빠르고 잔고장이 덜 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았다.

저는 삼성의 디지털 기기가 애플의 디지털 기기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국내의 기업 때문이 아니라 성능과 서비스,



배터리가 삼성이 우월하며 디자인은 개개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의 기기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규-진주고 1학년)

[틴틴이슈] 기후변화 지구의 위기, 가만히 있으랴?

기후 위기의 직접 당사자이자 피해자는 바로 청소년!

기후위기 '개인의 실천'을 넘어 '함께 하는 행동'이 필요

이제 기후변화가 아니다. '기후위기'다. 기후변화라고 하기에는 전 세계가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폭염과 폭한의 기상이변, 태풍과 산불의 자연재난, 해수면 상승과 생태계 붕괴, 전염병의 확산, 식량부족과 기후난민의 증가, 속도는 어떻게? 이 모든 위기는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더 이상 흔히 쓰던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는 너무 한가한 단어가 되었다. 인류가 재난으로 생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폭염으로 쓰러지고 사망한다. 기후위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0.5도 남았다. 지난 100년간 산업문명은 무분별한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지구의 온도를 1도 상승시켰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1.5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말한다. 1.5도를 넘어설 때, 지구의 평형은 다시 회복될 수 없고, 인류 문명을 지탱해온 조건이 붕괴한다고 말한다. 이제 남은 온도는 0.5도다. 고작 10년 남았다. 1.5도를 넘지 않으려면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추세대로면 불과 10년동안 이 한계치를 다 사용하고 만다.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시간은 10년에 불과하다. 일부 급진주의자들의 주장이 아니다. 전 세계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모인 유엔 IPCC가 내린 결론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시급함을 요구하는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 한국은 무책임하고 게으르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계획도 파국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 응답할 때. 현재의 이윤을 위해 내일의 안전 따위는 무시하는 탄소중독의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실천'을 넘어 '함께 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제 책임 있는 이들이 응답할 때다.



기후위기 응답하라! 땡땡이 아닙니다, '결석시위' 합니다

9월27일 광화문, 학교에 가야할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청소년 기후 행동' 주최로 열린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에 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현재의 환경 위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운동화 형태로 열린 이날 시위는 오전에는 '길 위의 기후위기 세미나'를 진행한 뒤 석탄피구게임, 지구를 살리기 위한 합동제기차기 게임등을 진행했다.

기후변화행동에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유는 자신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가장 오래 살아갈 당사자이자, 기후위기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피해자" (청소년기후소송단 홈페이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테드 강연에서 자신이 100살까지 산다면 그때는 2103년이고, 2050년이 넘어도 기껏해야 인생의 절반을 살 뿐이라고 했다. 단지 몇십 년 후만 내다보는 기성세대와 2100년 이후까지 상상할 수 있는 세대가 바라보는 세상의 시간성은 이처럼 다르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거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협소한 시각으로 세상을 인지하고, 미래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당장 현재의 이익만 추구할 뿐, 앞으로 초래할 기후변화의 위험은 방기함으로써 미래에 전가하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거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협소한 시각으로 세상을 인지하고, 미래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당장 현재의 이익만 추구할 뿐, 앞으로 초래할 기후변화의 위험은 방기함으로써 미래에 전가하려고 한다.



그레타 툰베리 9월 23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문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에 올라와 있으면 안 돼요. 저는 대서양 건너편 나라에 있는 학교로 돌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희망을 바라며 우리 청년들에게 오셨다고요?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은 헛된 말로 저의 꿈과 어린 시절을 빼앗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운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멸종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한 것 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과학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외면할 수 있나요? 그리고는 이 자리에 와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필요한 정치와 해결책이 여전히 아무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고, 긴급함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슬프고 화가 난다해도,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로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데도 행동하지 않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은 약이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앞으로 10년 안

에 온실가스를 반으로만 줄이자는 의견은,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씨 아래로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50%만 줄 뿐입니다. 이는 또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되돌릴 수 없는 연쇄 반응을 초래할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50%는 여러분에게는 받아들여지는 수치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여러 티핑 포인트, 대부분의 피드백 루프, 대기오염에 숨겨진 추가적 온난화는 포함하지 않고 있는 수치입니다. 기후 정의와 평등의 측면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는 여러분들이 공기중에 배출해놓은 수천 억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임무를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떠넘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도 나오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가 초래한 결과를 떠안고 살아가야 할 우리는, 50%의 위험을 감수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5도씨 아래로 머무를 수 있는 67%의 기회를 잡으려면-IPCC가 제시한 현재로선 최상의 가능성인- 세계는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20기가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숫자는 이미 350기가 톤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감히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몇몇 기술적인 해결책만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척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처럼 탄소배출을 계속한다면, 남아있는 탄소예산마저도 8년 반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등고 거부' 운동에 나선 16살 소녀가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다.

안에 모두 소진되어 버릴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될 어떠한 해결책이나 계획도 이 남아있는 탄소예산을 고려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탄소예산을 나타내는 이 수치는 매우 불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전히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세대는 여러분이 배신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미래 세대의 눈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실망시키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임을 피해서 빠져나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 바로 지금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든 아니든, 변화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의 기후변화 위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구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삶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계속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요즘 방송에서도 지구온난화와 빙하가 녹고 북극곰이 방황하는 현상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잘만하면 위기가 재앙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 미션해결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지구온난화 가뭄과 폭염/ 홍수 국지성 호우/ 강력한 폭풍 토네이도 허리케인/ 북극의 빙하면적 줄어듦 해수면 상승/ 음식 소비 충족위한 동물사육으로 숲 파괴/ 생태계 변화 · 자원 순환 불균형/ 사막화가 진행되고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기후변화의 원인 물질]

1. 이산화탄소 (CO2)- 화석연료 사용, 산불 2. 메탄가스 (CH4)- 축산농업, 빙하 해빙 3. 블랙 카본 (검댕이, 매연)- 들불, 산불, 공장화재 4. 프레온 가스 (CFC)- 공업용 화학물질 5. 음식물쓰레기, 폐목재, 해조류 6. 농업용 비료, 농약 6대 물질들(원인)을 줄이면 열쇠가 보인다. 가능하면 이 물질을 대기중에서 제거하고 해양과 지구 생물권에 재 흡수된다면 지구온난화가 사라질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 생활]

*자가용 말고 대중교통 *대기전력 대신 플러그 뽑기 *비닐봉지 말고 에코백 *1회용컵 대신 자기 컵(텀블러)사용 *(자원)아끼고 (쓰레기)줄이기 *녹색(환경마크)용품 사용 *탄소포인트제 · 탄소캐시백 참여 *친환경 에너지 차량 사용 확대 *날씨 · 미세먼지 특보 확인 *환경단체 가입, 활동

이제 우리는 지구와 우주 오염 물질들을 줄이고 예전의 상태로 끌어내려야 한다. 우리생활에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들과 오염 물질과 과감히 이별하면 주요 발생 원인이 사라지고 깨끗한 환경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수달이 돌아오고 밤이면 숲에 반딧불이가 반짝이는 그런 환경이라면 좋겠죠.

[19금 톡톡] 성인용품점이니까 19세미만 출입금지

자위는 해도 되지만 자위용품은 19금?



최근 성인용품점은 과거 몰래 찾아야만 했던 민망하기만 한 장소에서 젊은 커플들의 데이트 코스 장소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마켓워치에서는 성인용품 시장이 2020년까지 그 규모가 27조원까지나 성장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아직까지 청소년들에게 성인용품점은 베일에 싸인 성역 같은 공간이다. 이번 19금 톡톡에서는 필통

기자들이 성인용품점을 직접 찾아 취재했고 청소년들이 성인용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취재해 보았다.(성인용품점은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 필통대표님이 기자들과 동행했고 영업시간외 시간에 업체 사장님의 양해를 얻어 취재를 했음을 밝힌다.)

청소년들이 성인용품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성인용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음지에만 있던 성인용품 매장이 이제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핵심 상권에 진출하기도 하고 대형마트에서 운영하는 디스카운트 스토어 '베에로쇼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바로 성인용품 제품을 파는 코너란다.

그러나 성은 여전히 청소년들에게는 음지의 영역이다. 가정의 성교육은 시도 자체가 특별하고 학교의 성교육은 아직도 생물수업의 연장선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우리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호기심을 차단시키고만 있을까? 농담삼아 '요즘 애들은 알거 모를 거 어른보다 더 잘 안다.' 고 할 정도로 오히려 수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 그것도 적나라한 영상물을 너무나 쉽게 접하고 빛의 속도로 전달되는 데이터 통신덕에 마음만 먹으면 그 무엇이든 공유가 가능하다.

그것이 현실임에도 학교와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하면 잘 통제하고 차단벽을 튼튼히 쌓을지만 궁리하고 있는지 모른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위를 한다. 또한 성관계를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가는 추세인 것도 사실이다. 자위도 성관계도 19금일 수는 없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전제된 상황에서 자위든 성관계든 그 무엇이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인용품도 그렇다. 법적으로 청소년들은 성인용품점에 출입하는 것도 불법이고 어떤 용품이라도 구매를 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자위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 아님 스스로 자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고 어떠한 도구를 이용하는 것은 성인이후이어야만 하는가? 모든 미성년자들의 성관계는 불법인가? 아님 도구나 보조용품을 사용하는 것만 불법이란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19세라는 나이라는 장벽을 쳐 놓고 합법과 불법, 도덕과 비도덕으로 나누는 것이 우리의 성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섹스를 허하라, 성인용품을 허하라, 그런 주장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분명 청소년들이 성인용품을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성장중일 신체적인 특징, 성에 대한 부족한 지식이나 경험, 성적인 자극을 성인용품에 먼저 의존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 등등으로 성인용품은 청소년들에게 권장할만한 것이 아님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청소년 스스로가 가져야 한다. 성과 관련된 자신의 결정을 19세라는 나이가 아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와 학교는 청소년시기 그런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곧 교육인 것이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분명 그래야 한다.

언제까지 성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을 미숙아, 저능아 취급하고 금 그어 놓고 억박지르지만 할 수 없지 않은가?



성인용품 사장님과의 솔직 톡톡

Q. 성인용품 가게들은 내부를 다 가려야 되나요?

A. 제가 가게를 10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를 오픈 할 당시부터 경찰이나 여러 시민단체에서 가리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진주는 보수적인 지역에 더 그렇죠. 가릴수록, 구석진 곳에 있을수록 장사가 잘 되기도 합니다. 안 가리면 불법, 그런건 아닙니다. 요즘 대도시에도 가보면 일반 로드샵 같이 모든 것을 오픈한 곳이 많고 진주에도 가리지 않고 판매하는 큰 매장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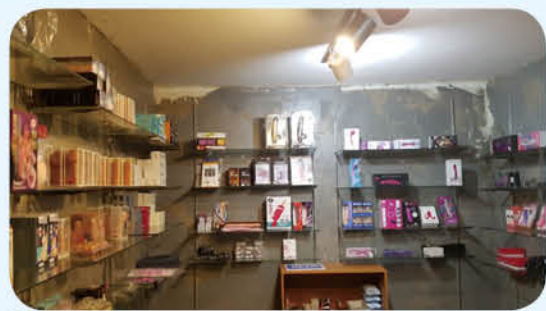
Q. 성인용품을 청소년이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A. 일단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인용품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제품이라고 규정해 놓고 법적으로 팔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기는 성적 지식은 물론이고 성에 대한 가치관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시기이기 때문에 남녀간의 사랑보다 도구에 의한 자극을 먼저 경험하고 자주 접한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Q. 성인용품점을 이용하는 나이대와 성비는?

A. 일반적으로 20대~70대까지 다양하고 남녀성비는 6:4 정도로 남성분들이 많지만 여자 분들도 남자 못지않게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Q. 자위는 19금이 아닌데 자위용품은 왜 19금 인거



죠?

A. 자위를 하는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위를 할 때 보는 영상들을 법적 청소년들이 보는 것은 사실 불법입니다. 하지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야동사이트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청소년들은 성에 대해 이미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인용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제하는 것입니다.

Q. 성인용품들 중 위험한 물품은 없나요?

A. 요즘 성인용품들은 과거와 달리 품질이 정말 좋게 때문에 다칠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각기구마다 사용방법을 잘 알아야하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택하여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을 사용하거나 과하게 사용하지만 않으면 위험성은 전혀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성인용품을 어떻게 생각할까?

▶ 성인용품은 항상 베일에 쌓여 있어서 왜 저렇게 꼭꼭 숨기나 하는 생각은 들었다. 오히려 너무 가리는 탓에 궁금증이 더 커져서 찾아보긴 했지만 딱히 청소년도 써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삼현여고 1학년 S)



▶ 청소년들의 성인용품 사용에 대해 비판적인 것이 사회 전반적인 모습인데, 청소년들도 인간으로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권리를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신고 2학년 P)

▶ 애초에 성인용품은 말 그대로 성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비교적 성적 자제력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성인용품을 쓰기에는 부적절 하다고 생각한다. (기계공고 1학년 M)

▶ 성적 욕구의 해소는 청소년의 자유고 성인용품의 사용 또한 같은 맥락으로 학생들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의 성인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명신고 2학년 L)

▶ 성인용품은 청소년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해서 우리가 써도 된다는 것을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이 딱히 없다. (삼현여고 1학년 K)

▶ 성인용품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도 자위나 성관계 같은 성행위를 하는데 왜 관련 용품은 성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 또한 제대로 된 검증이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는 성인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생적이라고 생각한다. (동명고 2학년 A)

2020년 CES 19금 되나?.. 성인용품 전시 허용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박람회 CES가 '성인용품'을 허용할 방침이다. 2020년 CES 전시장에서는 다양한 성인용품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T전문매체 더버지는 "CES가 내년도 쇼에서 성인용품(섹스토이)을 허용할 것"이라며 CES 운영 측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성인용품)을 전시회의 어떤 카테고리에 넣을지 평가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더버지에 따르면, 성인용품은 건강과 웰니스 섹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완전 개방은 아니다. CTA 측은 홍보 수단으로 '맨살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등'의 노출의 상을 입는 직원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즉 드레스 코드 정책을 강화한 것이다. 이런 규정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추가할 예정이다



[맏칸년맏반] 대아고등학교 2학년4반편

2학년 4반의 30가지 그림자.. 대아고 문과 최고 엘리트 2학년 4반!

한 반에 30명이라는 많은 학생을 보유한 문과 최강 2학년 4반! 엄청난 인원수를 바탕으로 체육대회에서 줄다리기 가볍게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림이면 그림,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다재 다능한 친구들이 다 모였다. 다양한 친구들이 모인 만큼 엄청난 에너지가 넘쳐 흐른다. 문과 최강을 넘어서 대아고 최강반이 우리의 목표! 2학기도 열심히 달려가자~!



우리반 담임 문혜진선생님~

최고의 담임선생님! 국어과목 문혜진 선생님입니다. 무려 서울대 국어교육과를 나오시고 부전공으로 지리를 공부, 최강 학벌을 보여주신다. 학교 부임 첫 날 신의 실수로 우리 반을 덜컥 떠안아 버렸다. 명문대 출신인 만큼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을 자주하신다.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고, 바른 말을 사용하시는 천사 같은 선생님이다. 최강 맏썰꾸러기들의 맞춤 조련사. 문혜진 선생님 사랑해요~♥

▶ 우리 반 급훈 "내가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모두가 급훈을 고민하는 순간 하강영 학생이 고안해낸 최고의 급훈이다. 급훈으로 선정되긴 했지만,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떠돈다.^^ "스스로 알을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버리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J.허슬러" 라는 말에서 따온 것으로, 인생은 스스로 부딪쳐 경험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더 큰 영광을 가져다준다는 뜻이다.

나의 이상형 & 하고 싶은 말

이름	나의 이상형	하고 싶은 말
고범준	유머러스한 여자	웃겨? 웃기냐고
곽시훈	고기 잘 굽는 여자	고기는 내가 구울게
김동경	자동차 좋아하는 여자	GMC 튜닝지원팀 화이팅!
김동연	유능한 여자	내가 무능해서
김민호	나를 좋아해주는 여자	미술학원 어디 다니지?
김승도	좋은 사람	안녕^^
김의석	내가 못하는 걸 잘하는 여자	아재!
김태우	현명한 사람	잘 살자
문지훈	레깅스 잘 어울리는 여자	같이 헬스 해요 ㅎㅎ
박준은	밥 사주는 여자	밥 사줘
배동민	개념 있는 여자	우왕~ 신문 탔다 ^^
백지수	자기 관리 잘하는 여자	하이
서효준	키작은 고양이상 여자	희희낙락 구독 좀
손동현	초전동 사는 여자	맛찬들 노예 한선우
손해유	귀여운 여자	9월25일 악동뮤지션 컴백
송민근	도둑	수갑 차실 분
송현석	멋있는 여자	하위~
윤준석	힐러	게임합시다.
이환희	예쁘고 귀여운 섹시한 여자	나랑 같이 놀 사람
임건황	아담하고 귀여운 여자	이미 찾음
장현서	얼굴 동그란 여자	잘 먹는 사람이면 더 좋아
진예담	키164에 인디언보조개가 예쁜 여자	♥
진재민	메이플 하는 여자	PC방 같이 갈 사람?
최선문	없음	겨울
최현호	돈 많은 여자	3521459884813 농협 ㅎㅎ
하강영	마라탕 먹을 사람	슈의 라면가게 고수 찾아요.
한선우	자취하고 잘 취하는 여자	개천 갈 사람
허용준	귀여운 여자	대아고 파이팅 !!
허우준	선명여자고등학교 우혜빈	놀래제 ㅎㅎ 많이 사랑해♥
황성진	여자 좋아하는 여자	아항 기모띠잉

맏썰꾸러기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임건황:슬리퍼를 비롯해 곳곳에 전 여친이 준 물건들이 아직도 많이 보인다. 중학교때 과학 동아리 간부였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문과에 왔다. 반장선거 때 한 표차이로 낙선하여 현재 평민으로 남아 있다.



백지수:우리 반 비주 열담당이다. 머리가 진짜 작다. 조용한 편이지만 장난을 좋아한다.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노래는 잔잔한 발라드를 잘 부른다. 그리고 잠을 잘 자는 편, 학교를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갈 때가 있다. 머리가 백지 상태에 가까운 낙담에 충실한 친구이다.^^ @baek_js77



허우준:자고 먹고 자고 를 반복하는 날씬한 돼지. 친구들에게 웃음을 주기도하며 오래된 연애를 통해 연애상당이 쌈가늠! 끝 뒤에 여자친구의 흔적으로 가득..지갑에도...수업시간에 책이 거의 없어 땀감으로 쓴게 아닐까하는 의심이 드는 친구다.



손동현:요리동아리 <식객>의 동아리 부장이다. 요리 실력이 감히 백종원에 어퍼컷을 날릴 정도라 누군가(?) 말했다고 한다. 친구들 우유를 거의 한달째 모아 사물함에 쌓아두고 불법 치즈공장을 운영하다 썸한테 걸리기도 했다.



곽시훈:체육대회 날 간지 나는 드리블로 우리 반을 먹살 잡고 캐리하며 농구 2등으로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길 들으며 자신의 회사인 <시훈컴퍼니>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3반에 도플갱어가 있지만 그 얘기를 하면 화를 낸다.



진재민:한, 중, 영, 일 무려 4개 국어가 가능 하다. 이 시국에도 일본어 1등급을 가뿐히 얻은 정도다. 메이플스토리 중독자라 다른 친구들이 노트북을 들고 와 생키부를 쓸 때 메이플을 켜고 열중한다.



하강영:우리 반 필통기자 중 한명이다. 열심히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신문에 실린 기사에 반 친구들은 무관심한 척.^^ 원일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가르마 스타일을 포기하고 앞머리를 만들었다.



송현석:놀랍게도 극심한 반대를 뚫고 제일중 전교부회장에 당선된 경력이 있다. 지금은 더 놀랍게도 바른생활부 차장이다. 학생회 대안 책임감이 높아 수업시간에 떠드는 애들을 조용히 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hs_4544



이환희:우리 반의 제2 부반장이다. 틈만 나면 머리를 빗박 깎고 시원하다고 한다. 스스로 우리 반 분위기 메이커가 되기를 자처한다. 자신은 머리는 좋는데 노력을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온다는 말을 자주한다.(명명)



장현서:문과 1등이다. 항상 탕자탕자 먹고 노는 것 같은데 성적은 요상하게 잘 나온다. 원탐을 다닌다는데..(혹시?) 관중끼가 있어서 발표에 적극적. 총무부장이고 장차 정치인이 되는 게 꿈이지만 썰아 놓은 업보가 많아 당선되도 걱정.^^



김의석:우리 반 또 다른 필통기자다. 신비주의의 컨셉만 보면 SM 출신 아이돌인 것 같다. 교실 맨 앞자리에서 수업시간이면 안전한 모범생의 한 축을 담당 하지만 반전의 개그욕심이 있다. 이상한 논리로 사람을 잘 썰다.



서효준:영화 <박화영>의 주인공 박화영을 닮았다. 억울해하거나 징징거릴 때 닮은 얼굴이 더 두드러진다. 우리 반 최장신이라는 피지컬을 강조하나 친구들은 만만하게 본다. 어떻게 그렇게 잘 다치는지 의문이 든다. 힘내 화영아!!!!!!



진예담:우리 반의 제1 부반장이지만 '공기 급' 존재감을 자랑한다. 대동제 때 2학년 경기에서 골을 넣고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얼굴에 그림자가 많이 지는 듯, 조각 같다는 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자가 있다는 게 놀랍다.



한선우:알바란 명목으로 '초전동 맛찬들'이라는 식당에서 노예 생활을 즐기고 있다. 알바를 하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돈이 많아 현석이 계속 월 사달라고 조른다.^^ 데칼코마니처럼 닮은 동생이 있다.



김승도:키 181cm, 다리길이 107cm의 피지컬이 눈에 들어온다. 태권도를 위해 아자를 빼는 일이 다반사일 정도로 태권도 사랑이 깊다. 태권도의 발차기를 잘 살려서 축구할 때 발리킥을 간지나게 한다.(골 결정력은 그닥;;;)



김민호:그림실력이 남다르다. 자신이 그린 그림을 우리 반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자주 쓴다. 동글동글해서 현석같이 다니면 담임쌤도 헛갈리게 한다. 손이 도라에몽 손을 꼭 닮았다. 가위바위보에서 월 내도 목처럼 보인다.



김동연:입지가 매우 위태로운 4반의 반장 되 시켰다.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는 성격이다. 놀랍게도 오민실 원년멤버였다. 이영조 쌤의 자습도움서비스가 실패한 유일한 케이스다;;



배동민:수업시간에는 조용하게 지내지만, 체육시간만 되면 날라 다닌다. 반에서 축구를 제일 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굉장히 웃긴 말을 조곤조곤 잘 한다. 안경을 끼든 말든 상관 없는 확실한 미모를 보여준다.

맏칸년맏반 신청바랍니다.

카톡ID : feeltong1318
이메일 : feeltong1318@daum.net
①신청인, ②신청학교, ③신청반,
④연락처, ⑤신청이유, ⑥구성내용
요약을 보내주세요.

[취재/ 하강영(대아고2)기자]

[동아리 탐방] 경상사대부고 과학동아리 개마무사를 만나다

꿀벌을 키우며 바나나 피아노를^^ 과학을 즐기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열어 갑니다!



〈경상사대부고 2학년 김나영(동아리 부장)〉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사대부고 과학 동아리 개마무사 부장 김나영입니다.

Q. 개마무사의 담당 선생님이 계신다고?

A. 노학기 선생님과 이지영 선생님께서 개마무사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이지영 선생님은 화학을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노학기 선생님께서는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수상하실 만큼 정말 뛰어난 물리 선생님이십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 수고해주시죠.

Q. 동아리명 '개마무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A. 개마무사는 고구려의 무적 기병을 뜻하는데, 당시 가장 뛰어난 철기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아리명을 '개마무사'라 정한 이유는 그 뛰어난 자질들을 다시금 발현하고 연마하여 과학적 소양과 전문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고자 하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Q.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주로 하나요?

A. 자신의 관심 분야에 관한 정보를 조사한 후, 부원을 앞에서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비슷한 진로를 가진 부원들이 조를 이뤄 직접 실험을 계획하고 실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달 아동센터에서 과학 교육봉사를 하고 과학의 날과 축제 때 부스 운영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Q. 개마무사만의 특별한 활동을 자랑해 주신다면?

A. 저희 동아리만의 특별함이 하나 있는

데요 특이하게 본교 옥상에서 양봉을 하고 있어요. 최근 꿀벌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인간은 정말 큰 타격을 입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양봉을 직접 실현해보며 꿀벌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또한 꿀벌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꿀벌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인 '허니데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꿀벌과 관련된 자료들과 정보를 정리하고 학생들에게 설명한 후, 문제를 맞히면 저희가 직접 채밀한 꿀을 바른 빵을 상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꿀이 맛있어서 그런지 반응이 꽤 좋았어요.ㅎㅎ

Q. 양봉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어려운 없나요?

A. 꿀벌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갈 때가 많은데, 여름 땀병에 긴팔, 긴바지를 입고 다녀야 한다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대부분 벌에 쏘이면 어떡하냐는 걱정을 하는데 꿀벌들은 움직임으로 물체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면 자신을 공격하는 줄 알고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침을 쏘는 거죠. 꿀벌은 가까이 있어도 우리가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Q. 개마무사엔 과학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나요?

A. 절대 아닙니다! 과학에 대한 흥미와 열정이 있는 학생이라면 환영합니다. 물론 인성도 중요하겠죠.

Q. 동아리에 들어가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A. 개마무사에서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심화된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는 만큼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어요. 저희 동아리는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경상사대부고를 대표하는 과학 동아리로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훌륭한 동아리 선배님들과 담당 선생님들이 저희의 자랑이죠.^^

Q.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요?

A. 남아있는 의학, 공학 조의 실험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동센터 봉사활동도 매달 꾸준히 갑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만큼, 앞으로도 자신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Q. 축제 때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나요?

A. 아두이노를 이용한 바나나 피아노를 만들어 체험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바나나로 직접 건반을 만들고 소리가 나게끔 코딩을 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부스에 많이 놀러 오세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A. 개마무사 친구들아, 다른 동아리에 비해 할 일이 많은데도 군소리 없이 잘 따라 와줘서 너무 고맙워. 내년에 개마무사를 부탁한다. 수고해^^ 2학년들아, 부족한 부장도 봐주느라 정말 수고했어! 개마무사 파이팅.

[취재/ 배재현(사대부고1)기자]



〈꿀을 채집하는 개마무사〉



〈개마무사 정기활동 모습/ 2학년 오예진〉

[필통뮤직차트] 청소년들이 즐겨 듣는 드라마OST

진주고 호텔델루나 '나의 어깨에 기대어' 선명여고 화랑 '죽어도 너야'

TV뿐 아니라 요즘엔 웹드라마도 방송되는 시대다. 어쩌면 학생들의 일상속에서 드라마 본방을 사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요즘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든 놓쳤던 드라마를 볼 수 있다. 넘쳐나는 드라마만큼이나 그 드라마에 삽입되는 OST 또한 너무 많다. 과연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즐겨듣는 드라마OST는 어떤 곡일까?

OST의 특성상 드라마의 흥행에 따라 인기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긴 하다. 그렇다보니 최근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호텔 델루나'의 OST가 순위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그러나 선명여고에서는 의외로 드라마 '호텔 델루나'의 OST는 편치의 Done for me외에는 없었다. 무려 2009년에 방영한 꽃보다 남자 OST가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드라마OST란?

드라마OST는 드라마에 삽입되는 음악을 말한다. 드라마 음악은 영상 안에 사건과 상황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극대화하면서 보는 사람들에게

좀 더 풍부한 감정이입을 하게 한다. 드라마 음악은 일반 팝 음악과 다른 구조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일반 팝이나 가요에서 멜로디와 가사가 중요한 요소라면 드라마 음악은 영상에서 멜로디와 리듬이 어떻게 움직여 영상과 잘 어울리는지가 중요한 요소다.

Tip 배우지망생의 한마디

“저는 꿈이 영화배우인 17살 남학생 하지호입니다. 저는 드라마 '도깨비'에 삽입곡인 'I miss you'라는 곡을 들으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동욱 배우님과 유인나 배우님이 커플로 나와서 연애를 하며 둘 사이에 시련이

나고 통이 찾아오는 장면이면 늘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이런 슬프고 안타까운 장면과 노래가 잘 어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이런 노래와 함께 정말 멋진 연기를 하는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OST는 배우라는 꿈을 간절하게 합니다.”



진주고 1학년5반(25명)		
가수	드라마	곡명
10Cm	호텔델루나	나의 어깨에 기대어(5)
폴킴	호텔델루나	안녕(4)
에디킴	도깨비	이쁘다니까(3)
아이유	호텔델루나	Our happy ending(3)
박효신	미안하다 사랑한다	눈의 꽃(3)

▶그외 : 태연(그대라는 시)/ 박효신(눈의 꽃)/ 나윤권(나였으면)/ 편치(Done for me)/ 소유(I miss you_

선명여고 1학년8반(22명)		
가수	드라마	곡명
뷔,진(BTS)	화랑	죽어도 너야(4)
편치	호텔델루나	Don't for me(3)
티맥스	꽃보다 남자	파라다이스(2)
에일리	도깨비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2)
안예은	역적	흥연(2)

▶그외 : 태연(그대라는 시)/ 다비치(꿈처럼 내린)/ 이적(걱정말아요 그대)/ 폴킴(안녕)/ SS501(내 머리가 나빠서)/ 민서(star)

OST Q&A

Q1. 드라마를 볼 때 OST는 어떤 요소라고 생각하나요?

A1. 기본적인 요소 없으면 심심하고 만약 드라마에 OST가 없으면 완성도가 떨어질 것 같다.
A2. 감동 유발
A3. 드라마를 몰입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요소
A4. 특정 가수를 좋아하는 경우 그 가수가 드라마의 OST를 부르게 되면서 드라마를 알게 된다. OST는 드라마를 알리는 중요한 마케팅 전략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Q2. 드라마를 시청 후에 OST를 찾아 들어보나요?

A1. 드라마가 보다가 노래가 좋으면 전체 플레이리스트를 추가해서 들어보기도 한다.
A2. 당연히 들어보는 편. 보통 드라마가 끝나고 다음 편 예고 후 자막으로 몇 시에 OST 앨범이 발매된다고 하면 기다렸다가 바로 찾는 편이다.

[취재/ 강우영(진주고1), 김선진(선명여고1)기자]

[맏칸년맏반-신청] 진주제일여고 2학년5반편

유쾌 발랄, 생기가득한 제일여고 스물 둘의 매력둥이가 모였어요!

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5반 맏칸년맏반 신청합니다! 저는 2학년 5반 11번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반은 처음 올라왔을 때 말이 없는 반이라고 수업에 들어오시는 선생님들 마다 말씀하셔서 그런 말을 계속 들으니 정말 1년 동안 재미없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니 그런 걱정을 왜 했나 싶을 정도로 어느 반보다 활기차고 흥이 넘치는 반으로 모두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희 반은 전체적으로 함께 친하고 단합이 잘 되어 급식을 먹을 때도 반 전체가 우르르 가서 먹습니다. 또 수업 분위기도 좋아 학교 선생님들께도 다들 인정하는 인기 있는 반입니다!

그리고 22명으로 이루어진 5반을 이끌고 계신 저희 담임선생님은 저희 학교 젊은 선생님들을 다 제

치고 학교 대표 귀요미라고 불리며 <익사모>라는 팬클럽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한 명 한 명 저 마다의 색깔을 지닌 친구들, 잘하는 것도 자신만의 매력도 다 다른 친구들이지만 함께 있을 때 가장 빛나는 5반입니다!

진주의 특색이고 핫플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필통신문에 실리면 너무 기뻐서 소리 지르고 좋아할 친구들의 모습이 상상이 갑니다. 하나같이 다 이쁘고 성격도 좋으며 자랑할게 너무 많아 내용을 어찌 줄여야 하나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지낼 1년 동안 얘기하며 웃을 추억 하나, 고등학교 생활동안 잊지 못할 추억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오합지졸 천방지축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 없는 마력의 매력이 가득한 저희 반입니다. 저희 2학년 5반 꼭 나오게 해 주세요^^



나의 이상형& 하고 싶은 말

이름	이상형	하고 싶은 말
강다윤	영앤리치 톨앤헨섬	공차 먹으러 갈사람~~
공세현	소금남	♥말랑 청순 가련 복숭아 차주노♥
공예진	창모	insta:@yezzin_2
구민주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	안녕~
김경림	x	x
김민진	한승우	x
김은지	나랑 비슷한 사람	해외도피 시켜줘
김채은	이은상	♥하롱말 애기 감장공 사말어사 이은상♥
김호정	김수현	빨리 드라마로 컴백해줘...엄청 호흡곤란 음...
류연서	키 크고 떡대 있는 운동 좋아하는 사람	가을 야구 보러 갈 사람~~
박지현	정상민	상민아 결혼하자
선지영	고양이 같고 매력 있는 사람	x
우현진	키크고 잘 웃는 사람	insta : @wo_bly
이서윤	이지은	11/24일 티켓팅 화이팅!
이화정	이한결	말랑공떡 두툼 애기호랭이 이한결
임서린	키 크고 하얗고 맛있고 취향이 나랑 비슷한 연상	1730365486
정재윤	장기용,이은상,이태민,최원재	x
최유진	박상원	동차 가고 벤츠 음 ㅎ
추현영	내 눈에 귀여운 사람	먹으면 안 되는게 왜 이렇게 많을까.
하예림	최태민	insta : @_haayrim
홍지원	키크고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야 놀자
황수정	황감익	사랑해.

우리반 매력 원탑!



공세현:(아이돌)박(사) 채은이 밑에서 열심히 아식 과정을 밟고 있는 친구다. 텐션이 올라갈 때면 엄청난 서울말을 구사하며 일본어를 잘한다. 시험기간이 되면 예민해지지만 평소엔 그저 겁 많은 장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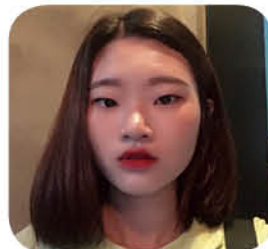
공예진:우리 반 분위기 메이커. 장난기가 너무 많다. 하지만 우리 반 대표 쫄보다. 눈치가 없다. ㅋㅋ... 입술색이 없어 선생님들한테 아프냐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그리고 곧 창모랑 결혼식을 곧 올린다고 한다.



구민주:한 때 우리 반 대표 눈썹 그리기 장인이었다. 사진보다 실물과 이고, 비율이 좋아서 키 작은게 티가 안 난다. 겉보기에는 시크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호탕하고 말이 많은 친구다. 친구 기분을 잘 맞춰준다. insta @minzu_9



김은지:얼굴이 완전 여우상이고 웬지 아나운서가 잘 어울린다. 손재주가 좋고 노래를 잘하며 외국어 발음이 좋다는 칭찬을 종종 듣는다. 차분한 평소 말투와는 대조되는 조금 독특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피부가 엄청 하얗서 뽀파이어 같다.



김채은:아이돌 박사. 각종 성대모사, 춤, 노래 모두 잘하는 끼쟁이다. 정말 별 것 다 아는 잡학다식한 친구. 올해 초 다이어트 성공으로 9kg를 감량했다. 엑스원의 큐티섹시 매력둥이 이은상을 무척 좋아한다.



류연서:우리반의 성실한 부반장. 키가 크고 개를 닮았다. 야구를 비롯한 스포츠를 매우 좋아하고 야구를 보느라 공부를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은근 성실한 정사이다. 집에서 학교까지 3분컷이라 자각할 일이 없는 아침이 여유로운 친구다.



박지현:남다른 첫인상. 남자친구의 옷 향기가 자기한테 활력소라며 옷 향기를 맡고 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른 거린다. 입만 열면 남친 자랑얘기에 입이 초승달이 되고는 한다. 그리고 웃을 땀 옆에 땀자국이 출현한 거 마냥 코를 킁킁 대며 웃는다. 집이 짙 가까운데 자주 자랑하는 친구다 ♡^△^♡



우현진:2학년5반의 장난꾸러기 우반장이다. 주변 친구들을 잘 챙겨주며 친화력이 좋고 웃음이 많아 보는 사람까지 기분 좋게 만든다. 청포도를 좋아해 옆에 가면 청포도 향이 난다. 하루에 학년실에 다섯 번도 넘게 불러 가는 데 눈을 반쯤 뜬 채로 가는 것이 일 상인 잠행이다.(□♥□♥□)



임서린:눈이 크고 키가 크다. 친구 어머니들이 예쁘다고 칭찬일색. 옛날 감성을 좋아해 옛날 노래, 뽀빠이 영화에 관심이 많고 소문난 얼빠로 지금은 스타쉽 구경도 연습생에게 정착 중. 말을 조리 있게 잘해 발표를 잘 하고 토끼를 닮았다는 말을 좋아한다. 웃을 때 인디언 보조개가 보인다.



최유진:첫인상과는 달리 친구들 일에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잠이 많은 친구. 학교에 자러 온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자서 가끔 얼굴을 보면 오랜만에 본 듯 한 느낌이 들. 기분이 좋을 때는 당장 날아다녀도 될 듯한 텐션에 가끔은 감당이 불가능 하지만 당 떨어 신이 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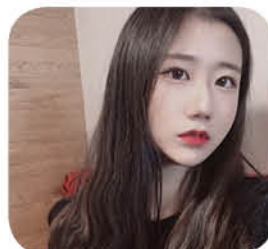
하예림:타칭 박보영 생얼로 웃을 때 박보영 닮은 친구.(지현알) 우리 반에서 아담하고 친구들에게 많은 웃음 준다. 보기와는 다르게 친구들을 많이 배려해 주고 고민을 얘기하면 마치 자기 일처럼 잘 들어 주려 애쓴다. 좋은 해결책까지 말해준다.



홍지원:아침마다 매일 과일을 먹고 있다. 좋고 싫음이 뚜렷하고 자기주장이 강하고 고민 없이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은근 고민도 많고 상처를 잘 받는 타입이다. 처음 보면 낯도 가리고 세 배이지만 알고 보면 웃음이 끊어질 틈이 없이 유쾌한 친구다. 요즘은 드라마 정주행에 푹 빠졌다고 한다. insta @jii_1_



황수정:우리반 자각대장 겸 컵누들 홍보대사. 매일 자각을 하지만 친구의 말로는 매일 빨리 노려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매일 아침으로 컵누들을 먹는다. 낮가림이 있어 조용해 보이지만 속이 깊고 재미있는 친구다.(□□□) ♡



강다윤:재치 있게 특목 내뱉는 말로 수업을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우리 반 분위기메이커다. 하회 탈처럼 휘어지는 눈웃음을 소유하고 있으며 목소리가 예뻐 노래도 잘 부른다. 행동이 느려 손이 많이 가는 타입. 챙겨줘야 하는 스타일~ 또 손해 보는 건 참지 못해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 insta @_da_yun

맏칸년맏반
신청바랍니다.

카톡ID : feeltong1318
이메일 : feeltong1318@daum.net

①신청인, ②신청학교, ③신청반, ④연락처, ⑤신청이유, ⑥구성내용요약을 보내주세요.

[씨네통통] 나쁜 녀석들: 더 무비 THE BAD GUYS: REIGN OF CHAOS, 2019

내비 찍고 왔지!.. 중독 마동석 모먼트



영화 줄거리

교도소 호송차량이 전복되면서 최악의 범죄자들이 탈출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다. 범죄자가 범죄자를 잡는 극비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옛 '특수범죄수사과'를 소집하는데 미친개 '오구탁' (김상중) 반장, 전설의 주먹 '박웅철' (마동석), 감성 사기꾼 '곽노순' (김아중)과 전직 형사 '고유성' (장기용)과 새로운팀을 만들어 더욱 강력하고 독해진 나쁜녀석들을 만날 수 있는 영화. 점점 더 재미어질수록 스릴 넘치는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롯데시네마 현장 긍정평가 96%



9월23일(월) 진주 롯데시네마 중앙점. 현장 관객 평가는 총 98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다. '한 번 볼만 하다'는 평이 47%의 압도적인 표를 받았다. 그 다음으로는 '강력 추천'과 '10점 만점에 10점'이 26.5%와 22.4%로 나란히 다음 순위를 달렸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평이다. 심지어 돈이 아깝거나 절대 보지 말라는 의견이 한 표도 없는걸 보아하니 그리 재미가 없지는 않은 모양이다.

관객이 직접 써 준 한줄 평. 대다수의 의견은 마동석과 그 외의 배우들에 대한 호평이 많았지만 스토리 전개에 대한 불만 표출이 상당히 많았다. 액션도 액션이지만 스토리가 뻔한 결말을 좋아하지 않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항상 영화의 결말은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 해피 엔딩도, 새드 엔딩도 항상 관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

<나도 평론가, 한줄평!>

- ▷ 액션은 좋는데 스토리가 조금 뻔했어요.
- ▷ 김아중 이쁨! 마동석 멋있다~
- ▷ 마동석등 배우들의 케미가 재밌다.
- ▷ 거~ 시원하네~
- ▷ 그냥 마동석만 보인다. 마동석만 보게 된다.
- ▷ 마동석 넘 멋져요, 마동석 나오는 액션영

화는 항상 짱!!!

- ▷ 마동석의 타격감 있는 액션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보다는 아쉬움..
- ▷ 재미있는 것 같기도 액션이 좋은 것 같기도, 연기도 괜찮은 것 같기도..
- ▷ 너무 졸릴 때 봐서 기대안하고 있었는데 잠이 깨 버릴 만큼 재밌고 마동석 멋있고
- ▷ 김상중, 김아중 기대했는데 넘 아쉽다.

▷ 액션은 처음~ 끝까지 좋았는데 스토리가 초반에 잘 가다가 끝에는 누구나 생각할만한 그렇게 뻔하게 끝남.

▷ 나라는 모든 백성이 지키는 것이다. 일본의 범죄에 대해서는...

▷ 캡틴 마동석!

▷ 범죄소재의 영화는 어두울 수 있는데 재미 있고 재밌었던 것 같다.



장르 : 범죄, 액션
러닝타임: 114분
개봉 : 2019.09.11, 개봉
감독 : 손용호
출연 : 마동석, 김상중, 김아중, 장기용 등
등급 : 15세 관람가
흥행 : 개봉후 2주 박스오피스 1위, 2019.09.25, 기준 누적관객수 404만명

<현장 관객 평가>

평가	득표	비율
10점 만점에 10점	22	22.4%
강력 추천	26	26.5%
한 번 볼만해	46	47%
그저 그렇다	4	4.1%
합계	98	100.0%



<필통기자의 관람평>

○온유희기자(삼현여고1)

솔직히 처음에는 보고 싶은 후보에 올라와 있지 않은 영화였다. '나쁜 녀석들'이라는 문구도 잘 다가오지 않았고 '저게 재밌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나서 생각이 바뀌었다. 마동석의 액션, 김아중의 털털함, 김상중의 중저음목소리, 장기용의 완벽한 외모 모든게 딱 들어맞아서 더욱더 재밌었던 영화였던 것 같았다. 하지만 한줄평의 의견과 같이 너무 뻔한 스토리로 끝이 나서 아쉬웠다. 친구들이나 연인과 봐도 재밌을 영화인 것 같고 웃음이 필요하다면 지금 티켓팅을 추천한다.

○김민수기자(경남예고2)

원래 치고 박고 싸우는 액션, 범죄 영화 같은 무거운 주제의 영화들을 좋아하지도 않고 즐겨 보지도 않는데 기사 취재 때문에 오랜만에 극장을 찾았다. 하지만 기대 이상으로 재밌었던 것 같고 중간 중간의 재치 있는 말로 많은 웃음을 주었던 것 같아 굉장히 만족했다.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먼저 드라마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드라마도 무척이나 궁금해졌다. 영화를 보면서는 뻔한 스토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해보니 전개가 밋밋했던 것 같다.

배우 마동석에 대한 모든 것

(흥행성적/국적/병역기피/나이/출연작)



<마동석은 8월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터널스 식구들, 그리고 드웨인 존슨. November 6 2020."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마동석 배우는 현재 충무로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배우 중 한명이며, 또 최근에 영화 마블영화 히어로 '길가메시'에 캐스팅되면서 국내외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마블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배우, 마동석.

- ▶ 마동석, Don Lee
- ▶ 출생: 1971년 3월 1일
- ▶ 신체: 178cm, 100kg
- ▶ 소속사: 빅펀치이엔티
- ▶ 국적: 미국
- ▶ 학력: 콜럼버스 주립 커뮤니티 칼리지

스포츠경영학 전문학사 (의외로 브레인)

▶ 별명: 마요미, 마뿐이, 마블리

▶ 마동석 주연 영화 흥행성적은?

- 악인전(2018) - 336만 명
- 성난 황소(2018) - 159만 명
- 챔피언(2018) - 112만 명
- 신과 함께-죄와 벌(2017) - 1441만 명
- 부라더(2017) - 149만 명
- 범죄도시(2017) - 688만 명
- 부산행(2016) - 1156만 명



마동석의 각종 논란들 (feat. 병역기피)

마동석의 배우로서의 모습은 굉장히 훌륭한 필모그래피를 쌓아가고 있지만, 배우 마동석씨도 네티즌들의 검증은 피해 갈 수 없었다. 대표적인 두 가지 가장 큰 논란이



있었다.

첫번째는 바로 병역기피 논란이다. 배우 마동석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하지만 18세에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 Don Lee가 된다. 그리고 만 30세가 되면서 병역의무가 없어질 때 한국으로 돌아와 배우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결국 배우 마동석은 군대를 가지 않은 것이다.

이 방법은 과거 90년대에 유행하던 병역기피 방법 중 하나라고 한다. 영장이 나온 후로 이민을 갈 수 없기에 그전 영장이 나오기 전 만 18세 유학을 갔고 그 당시 입대 마지막 연령인 30세가 지나서 돌아오면 병역의무가 완전히 해소 되었다. 명백히 법의 허점을 이용한 병역기피 방법이다. 현재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2005년 시행된 국적법으로 원천 봉쇄가 되었다.

두번째는 바로 마동석의 아버지 사건이다. 당시 연예계는 마이크로닷으로 인해 빚투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시기였고, 수많은 연예인들이 네티즌의 감사를 받게 되었다. 그 와중 마동석의 아버지가 83세 할머니의 노후자금을 빼돌렸다는 빚투운동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배우 마동석 측은 "2010년경 아버지의 사업상 투자 목적으로 받은 금액을 돌려드릴 예정이었으나, 금액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였으며, 판결에 의해 변제해야 할 금액을 모두 지급 완료하였음을 마동석 배우의 아버지와 담당 변호사, 그리고 판결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라고 상황을 설명하며 빚투운동은 일단락 되었다.

[SNS 맛집 탐방] 가좌동 '사마'를 찾았습니다

요즘 난리 난 육즙폭탄 대창덮밥! 드셔보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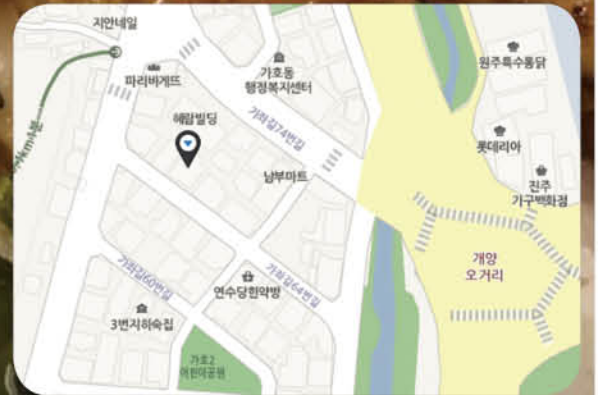
식당 Review



사마는 깔끔하고 정갈한 분위기다. 일본식 카레 전문점이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운영하고 계신다. X NO JAPAN X 최근 일본불매운동 때문에 걱정이지만 일본브랜드도 아니고 일본산 식재료도 아니니 편하게 찾아도 될 듯 하다.

가게 외부 모습이다. 조금 골목길에 있지만 대학 근처에 자리한 만큼 분위기는 좋은 외관으로 시선을 끈다. 일식집의 동양적인 분위기와 약간은 서양적인 건물 모습이 세련되게 어울려진다. 최근 맛집으로 등극하며 피크타임에는 웨이팅도 있고 오후만 되면 재료가 항상 소진 되는 핫한 식당이다.

가게 내부의 모습이다. 다른 손님들이 식사 중이라 최대한 조용히 촬영했다. 조용한 분위기에 쾌적하고 깔끔해 식사를 하기 편했다. 한쪽에는 혼밥족들을 위한 자리도 있다. 벽 곳곳에 액자가 걸려있고 조명이 되게 특이해 사장님의 센스를 알 수 있었다. 화분이 많이 놓여있어 더 쾌적한 느낌이 들었다. 좌석은 2인 5개, 4인 7개, 혼밥러를 위한 1인 좌석 8개다.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길64번길 3-1 1층 (가좌동 1436-5번지)
영업시간 : 평일 오전11시~오후9시(3시~5시 브레이크 타임)
주말 11시 30분

음식 Review



식사 전 테이블 기본 셋팅이다. 음식이 나오기 전 국물이 나왔다. 국물은 그냥 평범한 우동국물 느낌이었다. 그런데 의외로 깔끔하고 묘한 중독성이 있었다.



가장 먼저 나온 메뉴는 바로 '모듬튀김'. 이 메뉴는 새우볼 튀김 2개, 표고 버섯튀김 2개, 나우자카 고로케 1개(4조각)로 구성되어 있다.

〈맛평가〉
▶정보경기자(중앙고 1학년) / 4점 튀김이 너무 기름지거나 느끼하지 않았고 겉돌며 먹은 샐러드와 타르타르소스가 상큼하고 깔끔해서 맛있었다.

▶김의석기자(대아고 2학년) / 4점 원래 샐러드를 드레싱과 찍어 먹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데 드레싱과 샐러드가 잘 어울려 맛있었고 튀김이 바삭바삭해서 좋았다.

▶오지원기자(진양고 1학년) / 4.5점 말 그대로 입에서 녹는 맛이다. 함께 나오는 샐러드조차 맛있다. 특히 감자 고로케의 부드러운 맛이 정말 좋았다.

모듬튀김을 다 먹고 나니 다른 메뉴들이 한꺼번에 모두 나왔다. 먹기 전에 사진을 찍으며 또 한 번 sns맛집이란 걸 실감했다. 테이블보와 그릇들이 카메라 화면만으로도 너무 잘 어울렸다. 예쁜 비주얼에 계란들이 음식에 하나씩 올라간 모습이 감쪽하기까지 했다. 맛을 보기 전 비주얼은 엄지척을 들게 만들었다.



붓가게 우동은 굉장히 새로운 메뉴였다. 우동면에 소스를 넣어 비벼먹는 국물 없는 냉우동인데, 가스오부시, 쪽파, 김, 수란, 원지 모를 작은 바삭거리는 것이 곁들여 올라가 있다.

〈맛평가〉
▶정보경기자 / 4점 새로운 맛이였다. 가스오부시로 육수를 내고 소스를 만들어서 그런지 깊은 맛이 나면서 시원한 상큼함이 있었다. 식감도 재밌었고 보기에 이뽀했다.

▶김의석기자 / 5점 신기한 메뉴면서 계속 손이 가는 매력적인 메뉴였다. 다시 먹고 싶은 메뉴다. 우동이라고 해서 국물이 있는 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국물은 거의 없고 면을 거기에 찍어 먹는 요리였다. 한 번 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오지원기자 / 4.5점 소스 넣어 비벼먹는 냉우동이라 조금 생소했지만 간장배이스의 소스가 담백하고 깔끔해서 좋았다.



이 가게의 전통적인 대표메뉴인 사마 카레다. 우리는 매운맛 사마카레를 시켰다. 넓은 접시에 음식이 담겨있고 역시 예쁜 비주얼이다.

〈맛평가〉
▶정보경기자 / 2.5점 소스가 너무 많고 밥이 적었다. 매운맛을 시켰지만 매운맛이 아주 약했고 간이 조금 섰다. 대표메뉴인만큼 기대했지만 조금 실망했다.

▶김의석기자 / 3.5점 양은 좀 적었지만 개인적으로 적당한 간과 맵기로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대창덮밥이 줬던 만족감에는 미치지 못하는 맛인 것 같다.

▶오지원기자 / 3.5점 카레 전문점이라 기대감이 높은 탓이었는지 흔한 맛이라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무난하게 즐길만한 맛이였다.



요즘 SNS에서 가장 핫한 대창덮밥이다. 많은 대창덕후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새로운 음식이다. 어떤 맛일까? 고조된 궁금증을 안고 맛을 음미했다.

〈맛평가〉
▶정보경기자 / 5점 만점 밥 위에 통통한 대창이 많이 올라가 있어 꽤 놀랐다. 개인적으로 이 가게 메뉴 중에 가장 맛있었다. 달달하고 짭조름한 간장소스와 매운기를 빼고 아삭한 식감만 남은 생양파 그리고 고소한 노른자와 밥의 조합이 정말 최고였다.(행복한 맛)

▶김의석기자 / 5점 만점 돼지 잡내를 양념과 양파로 잘 잡아 거부감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소스, 대창, 양파, 밥 모두가 조화를 이뤄서 맛을 더 어울리게 하는 듯 했다.

▶오지원기자 / 5점 만점 사실 선입견이 있었는데 내장요리임에도 잡내가 전혀 없었고 식감도 훌륭했다. 메뉴 중 가장 맛있었다. 먹을수록 손이 가는 맛이였다!

잡스런 Review



〈가게 한 편에 옷걸이가 있다. 고객들 대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겨울철에 참 좋을 듯〉



〈사마카레의 특별한 장점이 있다. 바로 카레와 밥이 무한 리필이라는 것. 부족하면 맘껏 먹으면 된다〉



〈sns에 방문 후기를 올린 고객에게는 오미자차가 무료다〉

[취재/ 김의석(대아고2), 정보경(중앙고1), 오지원(진양고1)기자]

조별 과제 무임승차,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무임승차로 받는 불공정한 조별과제 점수 부끄러워해야...

오래 전부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책임감, 협동심, 리더십 등을 높인다는 취지로 모둠 형식의 수행평가나 조별과제가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학생들은 수업 준비와 발표, 과제를 조별로 하게 된다. 학생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과제 수행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스스로 문제해결력을 키움으로써 학습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과제 수행을 통해 협동심과 책임감도 높일 수 있어 조별과제는 유익한 교육방법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여러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제의 특성상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학생들은 그 중 가장 큰 문제로 단연 무임승차를 꼽는다.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조원으로 인해 열심히 하는 나머지 조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예들려 표현하는 말이다.

모둠 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 학생은 이렇게 답했다. “다음날 아침까지 보고서 제출기간 이었는데 그 전날 다른 조원이 아무런 연락도 주지 않고 잠수를 타 버

려서 어쩔 수 없이 그 조원의 몫까지 홀로 새벽이 넘어가도록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아침이 되어서야 ‘알림이 안 났다. 학원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답장만 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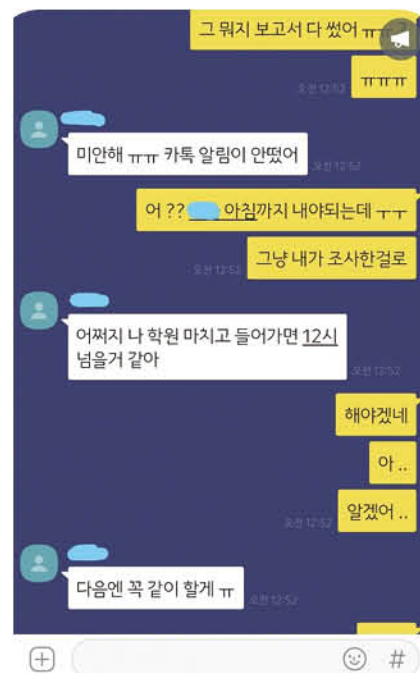
이렇듯 조별과제가 무임승차하는 학생들로 인해 다른 많은 학생들에게 피해아닌 피해를 주는 일이 빈번하다고 한다. 학생들은 모둠 과제로 얻은 것이 협동심과 결과로 인한 뿌듯함이 아닌 분노와 스트레스뿐이라고 말한다. 무임승차를 넘어 거짓말까지 하는 친구에게 화가 나지만 협동점수에 영향이 미칠까봐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속만 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무임승차도 문제지만 몇몇 학생에게만 과제가 집중된다면 그것 역시 문제가 된다. 모둠 과제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표출하고 제안하며 협동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과제수행은 함께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나 하나쯤 안 해도 괜찮겠지, 내가 안하면 다른 조원이 하겠지..’ 등의 안일한 생각

은 다른 조원에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일 뿐이며 공정한 점수 분배를 어렵게 해 모둠과제가 갖는 처음의 취지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한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조별과제에서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몇몇 학생들의 불성실한 과제 수행으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상황은 늘 발생한다. 조별과제 수행을 실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것이 잘 진행되기 위해 각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먼저 선행되었으면 한다. 공동의 일을 할 때에는 그 구성원이 똑같은 입장과 위치에서 시작하고 끝이 맺어져야 한다. 누구나 개인적인 사정은 있다. 특별히 누군가만 예외가 되거나 특별대우를 받을 수는 없는 법이다.

나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세,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터놓고 얘기하고 소통하는 법,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임감이 뒷받침 되어야 모두에게 유익한 조별과제 수행이 될 것이다. 이제 무임승



차하는 하는 학생들이 없었으면 한다. 무임승차로 받는 점수가 얼마나 불공정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운 점수인지 이제 알아야 하지 않을까?

[취재/ 강인원(진주제일여고1)기자]

짜요를 3번이나? Clean 식판 실천합시다!

잔반도 아까운데 한 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만 110만원

학교생활 중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 즐거운 시간은 아마도 급식시간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영양교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바로 잔반 처리 비용 때문이다. 최근 진주시 G고등학교에서 잔반 처리 비용으로 한 달에 무려 110만 원이 지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지만 1개씩만 배식되어 아쉬움을 주는 ‘짜요는 요구르트’를 한 달에 3번이나 먹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 물론 심각한 잔반 처리 실태는 G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진주교육청 학생건강 부서에서 밝힌 ‘2019. 1분기 학교급식경비’ 중 잔반 처리 실태 통계를 살펴 본 결과 G고등학교 이외에도 다수의 진주시 관내 고등학교의 잔반 처리 비용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잔반 처리 비용이 높다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매우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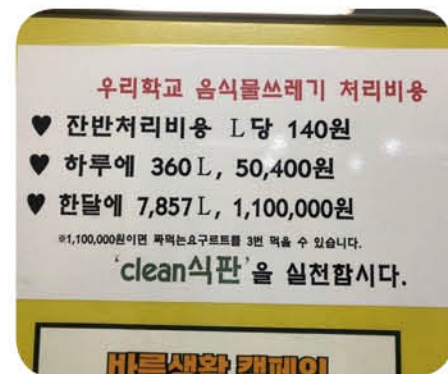
물 쓰레기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급식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높은 잔반 처리 비용은 왜 발생하는 걸까?

첫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단가가 인상되었다. 현재 서울, 화성 등 몇몇 도시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인상한 상태라고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업체에서도 처리 비용을 높이는 추세다. 실제로 진주시 교육청이 밝힌 M중학교, D고등학교의 잔반 처리 비용 증가 사유는 음식물 처리 단가 인상이라고 한다.

둘째, 올해부터 시행된 초·중·고의 무상급식으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상급식을 시

행하자 메뉴에 따라 식사를 안 하거나 음식을 버리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G고등학교 학생 A양은 “돈 내고 먹었을 때는 솔직히 아까워서라도 억지로 급식실 가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무상급식이니깐 굳이 맛있는 건 먹지 않고 버리게 되고 급식실도 안 갈 때가 많아졌어요. 매점을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진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만 수백 억, 심각한 환경오염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대표적인 해결책으로는 잔반 지도 교육이 있다. 초등학교에서도 많이 시행되는데 실제로 진주시 D초등학교에서 잔반 지도 교육으로 작년 대비 잔반이 크게 감소했다고 한다. 또한, 편식 등 식생활 지도, 자율 배식대 운영, 수다날(수요일은 다 먹는 날)과 같은 각종 이



벤트 등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학교 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급식 실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마음가짐일 것이다. 잔반을 남기는 것도 아까운 낭비인데 천문학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도 내야 한다니... 학생들도 그 심각성을 깨닫고 잔반 줄이기에 다함께 참여해야 할 것이다.

[취재/ 전규원(경해여고2)기자]

사라진 우산, 학생들 양심만 탓하나?

양심우산이라는 좋은 제도가 잘 운영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많이 들고 다닌다. 실수로 우산을 들고 오지 않았거나 하교 할 때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많은 학생들은 곤란을 겪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는 ‘양심우산’이란 것이 있다. 그냥 온 몸으로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구제주가 되어 주는 우산이다. 물론 잘 쓰고 다음날 학교에 다시 반납하는 시스템이다.

J고에도 양심우산이 있다. 그러나 J고에는 나갔던 양심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 양심우산통이 텅텅 비어 있다. 양심우산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대체 왜 우산들이 돌아오지 않고 항상 빈자리로 있을까? 왜 양심우산을 가져간 학생은 다시 갖다 놓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단순히 학생들의 양심에만 맡기고 우산을 다시 회수할 현실적인 방법을 누구도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산을 다시 반납하지 않은 학생들을 양심 없는 학생들이라고 비난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 되지 않

는다. 문제는 분명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가? 그럼에도 왜 문제를 개선할 대책이 나오지 않는가이다.

과연 J고만의 현상일까? 양심우산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을 것이다. 그 많은 양심우산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어떤 이유로 되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가져 간 학생이 챙겨서 학교로 오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다음날 날씨가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엔 바쁜 아침 등굣길에 우산을 챙겨 오기 쉽지 않다. 만약 비가 온다면 어떤가? 양심우산만이 아닌 자신의 우산도 챙겨서 학교로 등교해야 된다. 그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즉, 학생들의 양심과 선한 의지에만 맡겨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사라지는 양심

우산을 학교에서 계속 끊임없이 채워줄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좋은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게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래야 좋은 제도가 그 목적인 바를 이루고 또 더 좋은 제도가 더 많이 우리 사회에 생길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양심우산이라는 좋은 제도가 잘 운영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산을 가져갈 때 반, 번호, 이름 등을 쓰고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양심우산에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납이 되지 않으면 알려주고 가져 올 수 있도록 안내하면 된다. 번거롭고 누군가가 그것을 챙겨야 하지만 양심우산통이 텅비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스럽게 양심우산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학생들 스스로 좋은 제도가 누구에게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자



신의 책임을 다하면 된다. 자신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다른 누군가의 혜택을 빼앗고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식해 모든 우산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학생들의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어야겠지만 당장은 현실적인 대책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어느 학교나 양심우산통이 비어있지 않고 항상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양심우산, 이제 양심도 있고 우산도 가득한 학교가 되었으면 한다.

[취재/ 한재덕(진주고1)기자]

[필통 번역실] 그린데이 |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빌리조는 엄마에게 말했다 “9월이 지나면 날 깨워주세요”



〈왼쪽부터 트마이크 던트(Mike Dirnt), 레 쿨(Tre Cool), 빌리 조 암스트롱(Billie Joe Armstrong)〉

이번에 필통 번역실에서 번역을 할 노래는 미국의 록 밴드 Green Day의 노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9월이 지나면 날 깨워주세요)이다. Green Day는 1986년 캘리포니아에서 결성된 록 밴드로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전 세계적인 록 밴드며, 전 세계적으로 7500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올린 밴드이다.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가 수록된 그들의 7번째 정규 앨범인 'American Idiot'은 미디어에서 쏟아내는 허위와 선동에 침식당하는 현대 미국인들의 삶을 그리며 현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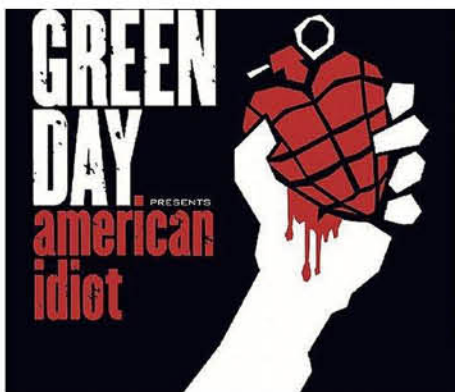


〈빌리조의 어린시절 모습〉

좌절을 표현한 앨범이다. 이 앨범은 27개 국가의 차트에 올라 그 중 19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선보였다. 미국에서만 600만 장, 전 세계적으로 15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앨범이며, 이 앨범으로 Green Day는 2006년 그래미 어워드(미국의 대중가요 음악상) 올해의 레코드 상을 수상하게 된다.

이 앨범의 11번째 트랙에 있는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는 Green Day의 보컬인 빌리 조(Billie Joe Armstrong)의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대한 추모 곡으로 작곡한 노래다. 실제로 빌리조는 이 노래를 연주할 때 마다 아버지 생각에 슬퍼져서 가장 연주하기 힘든 곡이라고 밝혔다. 실제 라이브에서도 눈물을 보일 정도이다. 가사에서도 아버지의 죽음과 아버지에게 대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부분이 많아 가슴 뭉클해지는 노래로도 유명하다.

9월, 혹은 추모를 상징하는 곡



빌리 조의 아버지는 1982년 빌리 조가 10살 때 식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드리기에 아직 어려했던 빌리 조는 어머니에게 '9월이 지나면 날 깨워주세요'라는 말을 남기며 방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이 노래가 9.11 테러 희생자 추모 곡으로도 유명한데, 이후에도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망자 추모 등 다양한 사건, 사고의 애도 곡으로도 많이 애용되면서 '9월', 혹은 '추모'를 상징하는 곡이 되었다.

이 노래는 아름다운 기타 선율로도 유명한 노래인데 간단한 코드 몇 가지만으로도 연주가 가능하니 집에 있는 기타로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가사를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Summer has come and past
여름이 왔다가 다시 흘러가지,
The innocent can never last
순수한 것이란 오래 가지 않으니까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9월이 지나면 날 깨워주세요

Like my fathers come to pass
나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마냥,
Seven years has gone so fast
7년이란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갔어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9월이 지나면 날 깨워주세요

Here comes the rain again Falling
from the stars
별들로부터 또다시 비가 내리고 있어
Drenched in my pain again
Becoming who we are
그 비는 다시금 나의 아픔을 적시고,
우리의 아픔을 적시는구나

As my memory rests
나의 남은 기억들,
But never forgets what I lost
허나 내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잃어버린 것들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9월이 지나면 날 깨워주세요

Summer has come and past
여름이 왔다가 다시 흘러가지,
The innocent can never last
순수한 것이란 오래 가지 않으니까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9월이 지나면 날 깨워주세요

Ring out the bells again
벨을 다시 울려주지 않을래,
Like we did when spring began
지난 봄이 다가왔을 때 처럼 말야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9월이 지나면 날 깨워주세요
Here comes the rain again Falling
from the stars
별들로부터 또다시 비가 내리고 있어
Drenched in my pain again
Becoming who we are
그 비는 다시금 나의 아픔을 적시고,
우리의 아픔을 적시는구나

As my memory rests
나의 남은 기억들,
But never forgets what I lost
허나 내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잃어버린 것들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9월이 지나면 날 깨워주세요

Summer has come and past
여름이 왔다가 다시 흘러가지,
The innocent can never last
순수한 것이란 오래 가지 않으니까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9월이 지나가면 날 깨워주렴.
Like my fathers come to pass
나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 마냥
Twenty years has gone so fast
20년이란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가 버렸어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9월이 지나가면 날 깨워주렴



노래듣기



그린데이가 10년 만에 한국에서 공연을 한다

그린데이 투어 스케줄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020년 3월 22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공연을 연다. 지난 2009년 첫 내한 공연 이후 10년 만에 한국 팬들과 만나는 것이다. 이번 공연은 폴아웃 보이, 위저와 함께하는 '헬라 메가 투어'의 일환이다. 투어는 내년 3월 시작되며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한국, 일본,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일정은 그린데이만 단독으로 참여한다.

그린데이는 오는 2020년 2월 7일 월드투어 개막을 한 달 가장 앞두고 새 앨범 '파더 오브 올...' (Father of All...)을 발매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투어 스케줄 발표와 동시에 동명의 타이틀곡을 공개했다.



[취재/ 광병규(진주교2)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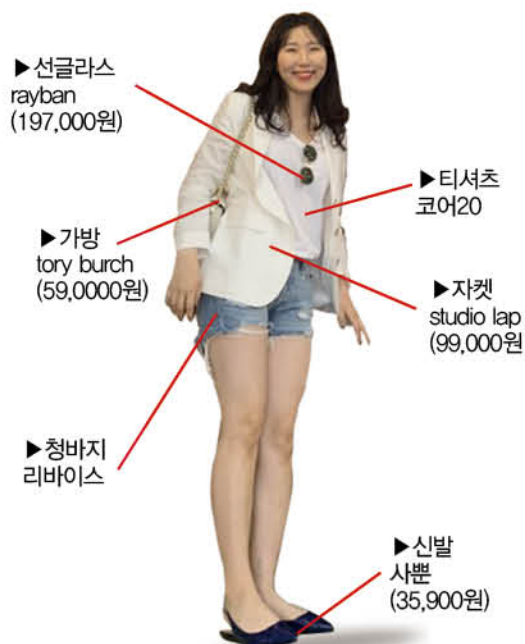
[I'M FASHION PEOPLE] 오후연(제일여고 2학년)

패션은 첫인상, 내가 제대로 표현되어야겠죠

FASHION PEOPLE 오후연 (진주제일여고2)

SIDE1. 가장 좋아하는 룩.
옷과 색 조합이 잘 맞는 배경이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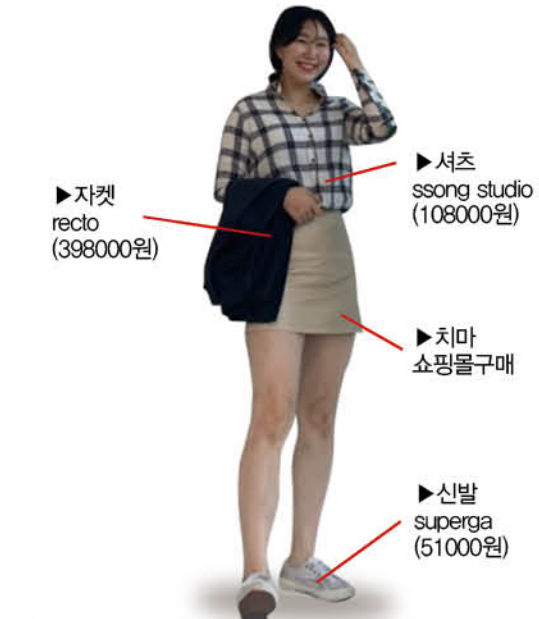
SIDE2. 힌티엔 청바지가 진리



SIDE3. 가을은 무적권. 트렌치코트



SIDE4. 마치 오늘 개강 한 사람처럼...



SIDE5. 라이더 자켓으로 강한 느낌을 주되 원피스와 운동화로 러블리한 느낌!



[취재/ 민세진(제일여고2), 진서영(삼현여고1)기자]

오늘 뭐 입지?



필통패피! 6문 6답

Q. 자기소개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오후연이라고 합니다. Q. 나에게 패션이란? A. 첫인상.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센스를 볼 수 있고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예를 들어서 딱 보면 '깔끔한 걸 좋아하는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엔 셔츠가 구구궁궁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항상 다림질을 하는데 그런 것에서 사람의 성격 등이 대충 짐작 가능한 것 같아요. Q. 평소 입는 패션 스타일은? A. 최대한 기본에 충실하죠. 거기가 포인트 되는 것을 추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톤온톤을 즐겨 하는 스타일. Q. 가을에 꼭 사야 하는 옷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A. 자켓이랑 니트요. 자켓은 그냥 무난하게 기본 티에 청바지만 입고 걸어도 코디를 예쁘게 해 주는 것 같아요. 니트는 가을엔 누구나 하나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니트를 티 위에 걸쳐서 포인트가 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Q. 제일 아끼는 옷은? A. 바이미나(bymina) 팬츠. 왜냐하면 청바지를 자주 입는데 아주 편하거든요! 청바지는 오래 입으면 입술수록 주인한테 길들여지는 데 바이미나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Q. 시도해보고 싶은 스타일이 있나요? A. 민소매, 퍼, 야상이요. 그 이유는 민소매는 아직 여러여러한 몸을 만들지 못해서 시도를 못했고, 퍼는 너~~~~무 부담스럽고 노안으로 보일 수 있어서 실패! 야상은 아직 버리고 있는 스타일이지만 이번 가을에는 꼭 예쁜 코디를 할 예정입니다.

가정통신문, 발자마자 쓰레기통 속으로?

통신두절 되는 가정통신문은 자원낭비, 현실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매달 여러 장의 가정통신문을 받는다. 학교홍보 및 알림사항은 물론, 학생들이 가장 자주 보는 급식 표부터 학교 폭력에 대한 사후 처리 상황 혹은 예방과 관련된 내용까지 가정통신문의 내용은 다양하다. 그 중에는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전교생 모두에게 한 장씩 배부하니 매달 가정통신문의 인쇄물량도 적지 않을 듯 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가정통신문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가정통신문 배부에 대해 질문해 봤다. '고등학교 입학 후 급식 표를 제외한 다른 가정통신문은 읽어본 적조차 없다.' '담임선생님께서 배부 후 교실에서 나가시면

대부분 바로 버린다. 보지도 않는 걸 왜 나눠 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종이가 아깝다.' '내용은 좋은데 읽어보는 애들이 없어 안타깝다.' 등 가정통신문 배부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당연히 이런 가정통신문이 각 가정의 학부모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직접 가정통신문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학부모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아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홈페이지에도 교복교과 가정통신문을 올리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요즘은 '아이엠스쿨'이라든지 'e알리미-스마트 가정통신문' 같은

일명 '학교 앱'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가정통신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도 '관심'이 없으면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가정통신문이 학교와 가정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학교와 학생, 학부모 모두의 관심이 모아져야 가능한 일이다.

분명 가정통신문은 학부모나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말이 가정통신문이지 실제로는 서로 통신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가정통신문의 내용은 대부분 학교소식들이다. 그 내용이 교복교과 부모님들에게 전달된다면 분명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이해나 자신들의 자녀의 학교생활을 살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

나 현실은 통신을 담당하는 학생들에게 가정통신문이 중간에서 사라지거나 집으로 가져가더라도 학부모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자. 이제부터라도 가정통신문을 교복교과 부모님께 전달하고 때론 그 내용을 두고 서로 대화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가정통신문의 통신두절을 살려서 조금은 뜸해 가는 가족간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소재로 사용해보면 좋지 않을까? 자녀의 학교소식이나 학교생활에 관심이 없는 부모는 없다. 그냥 잘 다니겠지라고 믿고 있을 뿐이다. 가방에 쑤셔 넣고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가정통신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소통시키는 가족통신문으로 이용해보는 노력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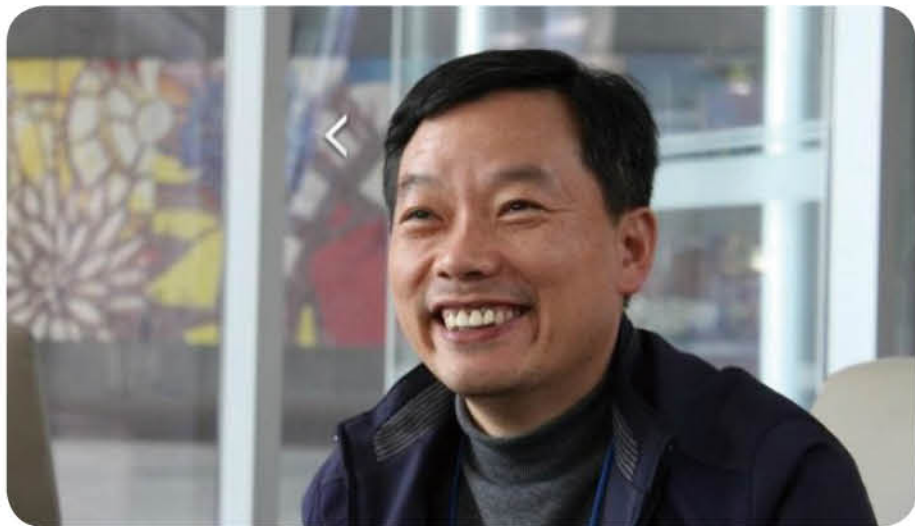
지금처럼 읽지도 않고 버려지는 가정통신문 배부 방법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학교의 예산낭비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국가적 손실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학교와 가정의 통신을 가로막지 말고 부모님들과의 새로운 대화창구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또한 학교와 교육당국은 현재의 가정통신문 제도가 현실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하고 학교와 가정간의 더 나은 소통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취재/ 김선진(선명여고1)기자]



[JOB을 잡아라] 공인중개사 강재훈님을 만나다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직업 영업 OK, 사람들과 소통 OK, 도전해 보세요!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경남 진주시 평거동에서 약 20년 정도 부동산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면서 건축사이기도 한 강재훈입니다.

Q. 공인중개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A. 집을 구하시거나 파시거나, 땅을 사거나 팔거나, 상가를 구입하거나 팔거나, 그런 모든 거래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Q. 공인중개사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A. 지역에 계속 있고 싶고 가족들이랑 늘 같이 있고 싶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 사람을 좋아하는 직업이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Q.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첫 번째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별도로 부동산 학과등을 꼭 다닐 필요는 없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면 될 수 있습니다.

Q. 대학의 공인중개사 관련 학과도 있나요?

A.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부동산 관련 학과가 많이 생겼습니다. 국제대, 창원대, 부산대 등등.

Q. 집, 건물, 땅을 알아보는 고객들에게 어떤(자세, 마음, 태도)으로 소개시켜주나요?

A. 팔려고 하던 사시려고 하던 공인중개사인 저를 찾는 분은 그 결과를 떠나서 같

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가 되고 안 되고를 놓고 고객을 대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기만 할 겁니다. 물론 간혹 상식 밖의 말이나 행동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피하고 되도록 만나지 않게 됩니다.

Q. 공인중개사 일을 하며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A. 최근에 집을 구입하신 분이 계신데 세 아이를 둔 부모가 드디어 자신의 집을 가지게 되었다며 너무 기뻐하셨죠. 말씀은 안하지만 가슴속으로 울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깐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 드렸다는 기쁨이 컸습니다. 원하시는 집, 빠듯한 돈, 여러 가지를 고려해 적절한 집을 구해드리는데도 능력이 필요한 일이기도요.

Q.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의 매력은?

A. 이번에도 제가 서울시청에서 어떤 창업 팀을 모집했는데 거기에 최종으로 합격했고 그 덕분에 런던에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정도 가게 될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라는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

고, 꼭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어디서나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직업적 장점은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한다면 뭐든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Q.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밟았나요?

A.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건축공학과를 전공했고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아파트도 지어보고 설계도 해보고 공사 감독도 해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매력을 충분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인중개사에 도전하게 되었고 또 상대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가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직업으로서 공인중개사의 힘든 점은 무엇일까요?

A. 이것 역시 영업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집을 팔아야 되고 땅을 사도록 만들어야 하고 팔기 싫은 상가도 팔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또,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입장과 주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영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한 이유죠. 아무래도 그런 일이 적성과 맞지 않는다면 공인중개사는 참 힘든 일이 될 겁니다.

Q.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나요?

A. 중개수수료는 속된말로 복비라고 하기도 하고 부동산 중개보수라고도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개보수 요율표와 같이 법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격을 따서 20대 초반에 사무실을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차라리 대학등록금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한 번 해 보겠다.' 고 하는 분들도 있으니 부동산 사무실이 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그만큼 폐업이나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사무실도 많답니다.

Q. 공인중개사는 재테크의 달인일 것 같은 느낌인데?

A. 글썄요. 부동산 관련 정보를 많이 안다는 것이 곧 바로 제테크로 등치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공인중개사는 모두 건물주나 부자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부까지 얻는 경우도 있겠지만 직업으로서, 일로써 공인중개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합니다. 일에 빠져 있다 보면 자기것은 제 때 못 챙기게 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능력만 된다면 제테크도 잘 하면 좋겠죠.

Q. 어떤 학생들이 공인중개사에 어울릴까요?

A. 일단 첫 번째로는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영업이니까 사고팔고 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이걸 공부만으로 잘할 수가 없잖아요. 영업을 좋아하고 적성에 맞아야겠죠. 두 번째, 어떤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일이지요. 사람을 만나고 친해지고 소통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즐기는 친구들에게는 좋은 직업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하며
나의 정보와 경험으로 누군가에 도움을 주며
수입을 얻는 일은 매력적이다"

대부분 과도하게 받는 경우는 요즘 없어지고 있습니다.

Q. 부동산 중개소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A. 맞습니다. 지금 부동산 사무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지금 20대에 대학을 막 졸업해가지고 취업이 안 되니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모든 것

공인중개사 시험은?

우리나라 첫 공인중개사 시험은 1985년 3월에 시행되었으며 1회 시험에 1만명 이상의 공인중개사를 배출하였다. 그 당시는 연령층이 많은 분들이 대거 합격을 하였으나 현재에는 대졸자등 젊은 층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회씩 치루어 진다. 시험은 매년 8월 정도에 있고 하루에 1차, 2차 시험을 같이 보게 된다.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 합격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시험당일 1,2차 시험을 같이 보기 때문에 1차 시험은 떨어지고 2차는 합격을 해도 둘 다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1차는 합격하고 2차가 떨어지면 1차는 인정되고 다음년도에 2차만 따로 시험을 보면 된다.

최근 5년간 합격률을 보면 대략 22~30% 정도다. 2018년에는 1차시험과 2차시험의 경우 21%의 합격률을 보였다. 높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2017년에 1차 25%였고, 2차 31% 였는데 21%로 낮아졌으니 난이도가 높아진 걸로 볼 수가 있다.

1차 시험과목은 부동산학개론, 민법이다. 2차 시험과목은 중개업법, 공시법, 세법, 공법 이렇게 총 6과목이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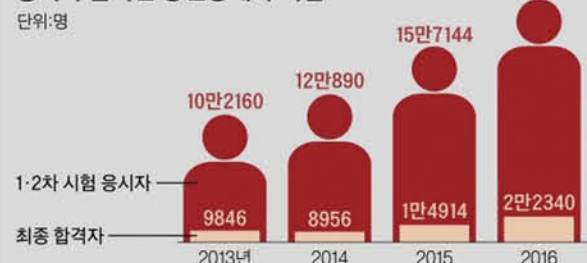
차에서 공시법과 세법은 20문항씩 40문제가 나온다. 다른 과목들은 각각 40문항이다. 또한 5지선다형으로 1,2차 각각 평균 60점 이상 나와야 합격이 된다. 과락제도도 있어서 한 과목에 40점 이하가 있을 때는 평균점수가 몇 점이나왔던 불합격 처리된다.

공인중개사는 몇 명? 수수료는?

부동산을 팔고 사거나 임대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직업인을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국가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실무교육을 받은 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2016년 통계로 9만 3215명이 개업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총 35만 8615명 중 약 26%에 해당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포화 상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려면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은 다음 개업하고자 하는 시·군·구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리고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개업을 할 경우에는 보증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해

응시자 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



야 한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하여 고객이 피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데 특별한 자격조건은 없으며 계약이 이루어지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 거래한 부동산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시장 분석, 부동산 자료 수집·제공, 부동산 중개 계약, 부동산 현황 분석, 부동산 권리분석,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 부동산 고객 협상,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부동산 중개 부수 업무 처리,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 등의 일을 한다.

[취재/ 장은령(진양고2),
하지영(선명여고1), 박예인(진주여고1)기자]

시험 중 문제 수정,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교사들의 시험 문제 출제 오류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대부분 고등학교의 2학기의 시험은 9월말에서 10월초 사이에 진행된다. 시험을 반기고 기다리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시험 기간, 범위, 문제의 난이도 등을 두고 다양한 불만들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이 다같이 공감하는 의외의 불만사항이 있다. 바로 시험을 치는 도중에 선생님이 문제를 고치는 것이다. 즉, 오류가 발생한 시험문제를 시험시간 도중 수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어이없는 일이지만 학교에선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시험문제에 오류가 발견되면 시험 도중에 과목 담당 선생님께서 교실을 찾아 직접 시험지의 문제를 수정한다. 큰 문제일까 싶지만 학생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내신에 포함되는 시험 한 과목 한 과목의 성적은 모든 학생들에게 민감하고 시험마다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선을 다해 시험 문제를 풀어가던 학생들에

게 갑작스런 시험 문제 수정은 부담스런 상황이자 그야말로 '멘붕상태'가 되기도 한다. 선생님들이 시험문제를 수정하는 방식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송을 통해 일괄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선생님이 직접 교실을 다니며 알리는 방법 또는 각 교실 칠판에 적어서 전달하는 방법 등이 있다.

시험도중 방송은 시간을 뺏길 뿐 아니라 학생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선생님이 교실을 찾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교무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반은 뒤늦게 시험문제 수정 소식을 듣게 되는 문제가 있다. 뒤늦게 학생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미 문제를 푼 학생들은 다시 읽고 답을 바꾸느라, 또 수정테이프를 사용하느라 정신없는 상황이 된다. 한 곳 차이로 등급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학생들의 성적은 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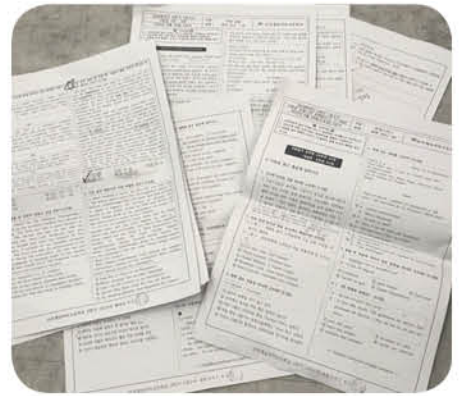
이것이 끝이 아니다.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시험문제에 도표, 그래프와 같은 사진자료가 많이 첨부되는데 시험지의 인쇄 상태가 좋

지 않거나 오류가 생기면 새로 선명하게 인쇄된 사진자료를 다시 나누어주거나, 칠판에 대문짝만 하게 대형 인쇄물을 붙이는 등의 혼란스런 상황이 연출된다.

물론 그냥 넘길 수도 있고 사소한 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답안지를 수정하는데 사용하는 화이트마저 신경 쓰는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무너뜨리는 등 큰 피해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또한 시험문제의 수정에 대한 교사들의 낮은 문제의식과 무감각은 시험문제 출제 오류를 양산시켜 학생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분명한 건 학생들에게 시험시간 도중 문제를 수정하는 것은 불만스러운 일이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시험은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 이상으로 그 결과가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진학과 직결되어 있으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진학에 도움 주



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시험이 학생들에게 그들이 목표하는 진학의 수단인 만큼 선생님은 학생들이 역량을 최대한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최상의 조건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학교나 선생님들은 출제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어쩔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시험문제를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고 학생들을 위한 길이다.

[취재/ 박서진(진양고1)기자]

양심 없는 급식 도둑, 이건 아니잖아요!

도식은 절도라는 학생들의 의식이 바뀌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와는 많이 다르다. 고등학교는 야간자율학습 일명 '야자'라는 것이 존재한다. 물론 야자를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 야자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녁밥을 해결하기 위해 석식을 신청하게 된다.

석식은 선택적으로 신청을 해서 먹을 수 있다. 대신 석식은 무상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 끼당 약 4,500원의 급식비를 낸다. 석식을 제때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은 당연히 석식을 먹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 학교들의 석식 때면 급식소에선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바로 일부 학생들의 무분별한 무전취식 문제다. 무전취식은 법률 제14908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9항(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에 의

거한 엄연한 범죄 행위다. 흔히들 '도식'이라고 하는데 맛있는 급식이 나올 때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급식 절도 사건을 말한다. 급식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이 몰래 식사를 하는 것이다. 이들의 상습적인 절도 아닌 절도로 인해 많은 학생이 피해를 입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무전취식을 막기 위해 영양사 선생님과 급식도우미가 석식 신청 여부를 철저히 검사한다고 하지만 역부족이다. 기계나 처벌, 감시로 도식을 완전하게 막을 수 있어 보이지 않는다. 도식 때문에 돈을 내고 급식을 신청한 학생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피해를 본다면 이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알면서도 넘길 수 있는 장난 같은 일이 아니다.

이대로 내버려둬야 하는 것이 맞는 걸까?

학교나 급식소에선 도식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에 의해 빈번히 일어난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기본적으로 도식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쉽게 도식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두고 학생들만을 탓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영양사 선생님이나 급식도우미보다 선도부장 선생님 혹은 선도부가 석식 신청여부를 검사를 하고 단속 하면 무전취식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도식을 하는 학생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도식은 명백한 절도다. 엄연한 범죄다. '어차피 남을 거'라는 생각은 접어두고 '다른 친구들이나 때문에 밥을 못 먹으면 어쩌지...'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신들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것에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도식은 절도라는 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학생들의 의식이 바뀌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또한 학교에서도 도식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학생들이 도식을 쉽게 행동에 옮기지 못하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세상은 학교에서부터 바로잡혀야 한다.

[취재/ 배재현(사대부고1)기자]

여성적 어조와 남성적 어조? 그게 뭔데?

교과서와 참고서 속 존재하는 성차별 이젠 그만

학생들이라면 한번쯤 '여성적 어조'와 '남성적 어조'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남성적 어조는 주로 격식체와 직설적 표현, 여성적 어조는 비격식체와 부드럽고 완곡한 표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격식체와 직설적인 표현을 쓰는 여자는 '남성적 어조'를 사용하고 비격식체와 부드럽고 완곡한 표현을 쓰는 남자는 '여성적 어조'를 사용하는 것일까?

교과서와 참고서에는 사회적 고정관념과 사회적 위치와 가치관에 따라 듣기, 말하기 방법에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고정관념과 가치관, 사회적 위치는 누가 정해놓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교과서나 참고서에 정당처럼 '여성적 어조', '남성적 어조'가 있는 것이야말로 고정관념과 가치관, 사회적 위치를 강요하는 것이다.

S여고 J학생은 "우리 학교 1학년 학생들 모두가 이 교과서를 사용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성차별적인 내용이 교과서에 있다는 게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성차별 표현은 교과서 속 남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다. 딱딱한 말투를 '남성적' 어조로, 부드러운 말투를 '여성적' 어조로 지칭하거나 자녀를 돌보는 사람을 여성으로만 묘사하는 교과서 서술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남학생들이 로봇을 가지고 노는 반면 여학생들은 인형을 가지고 노는 장면도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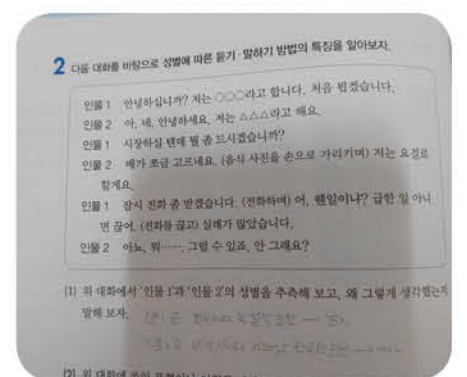
남녀의 공적 역할에 대한 서술방식도 문제다. 역사교과서가 독립운동가를 서술할 때 여성을 포함하지 않거나 남성 위인의 조력자로만 소개한다. 특성화고 고졸 취업 준비자 대상 교육자료 속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내용도 현재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만 서술돼 있어 '가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도 함께 다

루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남녀의 외모나 선호하는 색깔 등 일상 속 성별 고정관념도 생각해 볼 일이다. 도덕 교과서 속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책상다리를 하는 반면 할머니와 어머니는 무릎 꿇은 자세로 앉아 있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영어 교과서 삽화에도 남성은 티셔츠와 바지 차림인 반면 여성은 레이스 치마와 어깨가 과장된 퍼프소매의 옷차림을 하고 있어 아이들에게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행히 여러 교과서 출판사들은 이런 여론을 감안해 대부분의 문제되는 내용을 수정하는 추세라고 한다. 국어 교과서에서 '여성적 어조'라는 표현을 '여성 화자를 내세운 설정' 등으로 부분 수정을 하기도 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또 다른 성 정체성을 가졌던 그 자체로 어떤 사람도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 성차별이 만연했던 사회가 하루아침에 바뀌어 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학생들의 교과서 속 표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더 이상 성차별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교과서와 참고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공부를 하다 잘못된 표현이나 더 좋은 표현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교과서 속 내용이 있다면 나부터 요구하고 당당히 주장해야 한다. 그래야 더 빨리 바뀔테니 말이다.

[취재/ 진서영(삼현여고1)기자]

[우리학교에 있다] 진주여자고등학교엔?

아름다운 교정 그리고 최초의 학교도서관

‘학교’ 어떻게 보면 다른 학교를 다니지만 어느 학교나 모두 비슷비슷한 모습이고 학생들이 거의 별다르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낸다. 교문, 교실, 운동장, 칠판퀴 돌 듯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고 급식소에서 밥을 먹는다. 운동장에서 뛰어 놀기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기도 한다. 어느 학교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들이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무언은 없을까?

아름다운 교정



진주여고에는 다른 특별한 점들이 많지만, 그중 하나 ‘아름다운 교정’이다. 그 때문에 2009년에는 영화 여고괴담5의 촬영지로 선정되어 유명세를 타기도 했으니, 그 모습이 대중 짐작 갈 만도 하다. 웬만한 대학교 캠퍼스 뺀치는 진주여고의 교정, 진주여고 학생들은 학교 교정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

최초의 학교도서관



놀랍게도, 진주여고의 도서관이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도서관이라고 한다. 진주여고는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학교인데, 학교만큼이나 도서관에 대한 진주여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자부심이 대단할 것 같다. 또한 도서관 내에는 소설 '토지'로 유명한, 진주여고 출신의 박경리 작가의 동문 기념관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특별한 음악실

합창부 칸타빌레가 유명한 진주여고답게 가장 특별한 특별실 역시 음악실이다. 학생들의 음악 수업과 합창부의 특강을 들을 때 사용된다. 소극장 형태로 되어있어서 무대도 있고, 의자역시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의자이다. 내부에 창고도 있고, 칠판도 여러 개가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학교안 문화재, 석불 좌상

옛 진양군의 한 시민이 진주여고에 기부했다고 하는 석불 좌상이다. 진주여고 우측의 음악실 밑에 여러 석조물과 함께 있었는데 거의 방치되다시피 놓여져 있다. 처음엔 두 구의 석불 좌상이 있었다는데 현재는 한 구밖에 보이지 않는다. 머리 부분과 오른쪽 다리, 대좌(부처나 보살이 앉는 자리)가 파손돼 있다. 문화재라는 표지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진주여고에 재학 중인 학생조차 문화재의 존재 여부를 잘 모른다.



선생님! 이거 시험에 나와요?

시험붓이 되어버린 우리들, 우리 뇌를 말랑말랑하게 해보는 건...

“선생님! 이거 시험에 나와요?”

즉, 선생님께서 이 내용을 시험에 출제하신다면 공부를 할 것이고 아니라면 공부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한 번쯤은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학교 교실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고 또 아무렇지 않게 듣는 이 말이 어떤 때는 조금 불편하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진짜 시험 때문일까?

진주 지역의 고등학교 재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학교 수업을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점수’라고 대답한 학생은 82명, ‘지식’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18명이었다. 다시 말해, 학교 수업은 자신의 시험 점수에 영향을 미칠 뿐 자신의 지식을 쌓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통해 지식이 아닌 높은 시험 점수를 얻으려고 한다. 2020학년도 수시와 정시의 선발 비율은 대략 8:2다. 수시 비율이 4배 가까이 높은 만큼 학생들은 내신점수, 학교 시험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학기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러야 하니 꼬박 2달 이상은 늘 비상사태다. 내신에 직접적인 중간, 기말고사가 중요하지만 또 이런 저런 시험도 있으니 학생들은 학기 중 내내 시험 준비에 시달리는 꼴이다.

선생님의 설명을 집중해서 듣고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한다. 시험기간이면 시험 범위의 내용들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관련 문제들을 풀기 바쁘다. 언뜻 보면 시험을 통해 정확하고 확실하게 지식을 쌓는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거의 모두 잊어버린다. 수업 내용에 대해 아무런 호기심을 가지지 않고 그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외웠기 때문이다. 지식의 습득이 아닌 오직 시험을 위해서만 공부를 했다는 증거다.

또한 극단적으로 말하면 학생들은 문제의 답을 맞추기 위한 공부를 한다. 문제를 풀 때 자신의 사고가 아닌 답지의 사고로만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한다. 답지의 설명이 이해되지 않을 땐 그냥 풀이를 외워버리기도 한다. “왜 그럴까?”와 같은 호기심은 학생들에겐 사치와 다름없다.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으니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시험을 위한 답을 구할 뿐이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학교 공부는 그저 대학에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수업내용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호기심을 풀어내며 탐구 과정을 통해 여러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공부는 이제 불가능해졌는지 모른다. 현재는 학생들에겐 대학이란 목표가 가장 중요하고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최선의 길일테니 말이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이제 대학 졸업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성적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입 발린 소리를 해댄다. 그러나 뭐



가 변했을까? 여전히 학교와 교사는 대학에 목매고 학부모들은 성적이 당장 자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야간자율학습으로 학교의 교실 등을 꺼질 줄 모르고 학생들은 학원으로 내몰린다.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관계없다. 학생들 스스로 시험기간은 그것 이외엔 생각하면 안 되는 시험붓이 되어 버린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하루의 반나절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며 공부를 한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긴 시간 동안 오로지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위한 사고만을 강요받는 현실은 참 슬픈 일이다. 아마도 학생들의 말랑말랑한 두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릴 것이다. 결국 우리의 창의력은 쇠퇴할 것이고 사고의 폭도 좁아져만 갈 것이다. 시험도 중요하다. 그러나 시험 위주의 공부보다는 좀 더 수업 내용에 호기심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길러 보려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부쩍 드는, 그런 시험기간이다.

[취재/ 강은영(진주중앙고1)기자]



필통 토론방] 하우두유들, 당신의 유두는 안녕하십니까?

니플패치, 내 꼭지를 부탁해! 니플패치 착용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설리의 SNS 사진에 이어 마마무 화사의 입국 사진까지, '노브라' 패션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가운데, 설리와 화사처럼 개인의 자유와 편의를 위해 노브라를 택하는 여성들이 많아졌습니다. 설리는 "편견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등 노브라에 대한 생각을 당당하게 내비쳤는데요. 하지만 여성들이 브래지어를 벗고 밖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은 않아 보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브래지어를 벗지 못하는 주원인이었습니다. 최근 '니플패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니플패치(nipple patch)는

유두에 붙여 사용하는 스티커형 제품인데요, 밴드형, 실리콘형, 용, 다화용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한여름이 시작 되면 니플밴드 '니플패치'를 찾는 이들이 매년 증가합니다.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신체를 구속시켰던 브래지어로부터의 해방 남성들에게는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억압을 상징할 수 있는 니플패치일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젖꼭지, 그리고 리플패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리플패치 부착 단점이 더 많아...

저는 리플패치를 사용할 부정적으로 생각 합니다. 첫 번째 여름에도 많은 학생들이 옷 안에 얇은 옷을 한 번 더 겹쳐 입어 충분히 가려주기 때문에 리플패치를 사용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더운 여름에 땀이 많이 나면 리플패치가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리플패치는 제 기능을 다 하지 못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예민한 피부에 사용할 시에는 각종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플패치의 사용을 부정적으로 생각 합니다.

〈박민제/동명고 1학년〉



여성의 노브라와 남성의 젖꼭지는 평등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여성의 브라와 젖꼭지에 붙이는 니플패치는 거의 같은 용도로 쓰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노브라는 여성들이 불편을 호소하지만 부정적인 시선이 많고 남성들의 젖꼭지 노출은 당연시하며 니플패치 부착에 오히려 부정적입니다. 여성의 노브라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남성들의 젖꼭지 노출은 당연하다는 것이 너무 모순적입니다.

니플패치는 드럭스토어나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땀에 젖은 티셔츠에 젖꼭지가 노출되는 것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성의 노브라와 남성의 젖꼭지노출은 평등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니플패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박예인/진주여고 1학년〉



온전히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저는 리플패치를 사용할 부정적으로 생각 합니다. 여성에게 브라를 착용하라 강요할 수도 없고 남성에게 니플패치를 부착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온전히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브라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온전히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주었으면 좋겠다. 자신이 착용하지 않는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 하는 것도 너무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이 니플 패치를 부착하는 것도 자신이 부담스러우면 하는 것이고 편하면 그대로 다니는 것이다. 요즘 시대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추고 내가 중요한 시대다.

〈허윤지/삼현여고 1학년〉



니플패치가 유행하고 브래지어가 사라지는 세상으로

니플패치가 유행하고 성평등을 요구하는 우리 시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용한 소비자에게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면 니플패치는 모든 면에서 괜찮고 상용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에게는 브래지어 착용의 불편함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남자들 또한 니플패치를 사용함으로써 속이 보이는 면이나 힌트 등을 입었을 때 민망했던 유두 노출에 대한 거부감도 같이 해결될 수 있다. 여자 남자 구분 없이 니플패치가 유행하고 브래지어가 사라지는 세상으로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대성/명신고 1학년〉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하고 싶은 사람은 안하면...

노브라든 니플패치든 굳이 '해야 한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로 딱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부터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연예인들의 복장 논란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가장 큰 문제는 '니플패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아닌 남의 복장과 신체에 과하게 관여하려 드는 일부 언론과 대중의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서로의 불편함을 조금씩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변화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취한다면 굳이 강박적으로 브래지어와 니플패치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하고 싶은 사람은 안하면 되는 사회가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원지현/학교밖〉



남녀 모두에게 현명한 선택

여성은 브래지어를 착용했을 때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편할 것이다. 남성은 유두 노출을 꺼려 겉옷 안에 러닝이나 티셔츠를 입지만 그것 역시 답답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노출에 신경 쓰지 않고 옷을 입는다. 여성의 노브라와 남성 유두 노출의 공통점은 보는 사람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니플패치는 이러한 단점을 잘 보완해 준다. 니플패치를 잘 활용한다면 편하게 옷을 입을 수 있고 보는 사람의 시선도 불편하지 않게 해 줄 수 있다. 니플 패치를 사용하는 건 여러모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조민기/진주기공 2학년〉



다수의 편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하는 것 또한 불평등

여성의 노브라, 남성의 니플패치 부착은 전혀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착용을 하고 안하고는 본인의 자유이고 남이 관여하여 하라 마라 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몇 연예인들의 노브라 사건이 논란거리는 될지언정 그것에 대해 잘못됐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난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기 불편하기 때문에 속옷 착용과 니플패치 부착을 요구하는 것에 일부 공감은 하지만 그 또한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다수의 편의를 위하여 소수가 희생하는 것은 그것 또한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수/경남예고 2학년〉



가장 쉽게 지킬 수 있는 개인의 매너

리플패치의 최대 장점은 상대방에게 민망할 수 있는 젖꼭지를 가려준다는 것입니다. 일단 시각적 부담을 줄여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얇은 두께감으로 편하고 티나지 않는 좋은 착용감으로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저는 리플패치의 사용이 개인이 쉽게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창 예민한 나이의 학생들에게 콤플렉스를 가려주고 자신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리플패치의 사용을 추천합니다. 〈서령오/진주기공 1학년〉



니플패치가 없어도 사회적 시선이 불편하지 않는 자유로운 사회는 언제쯤...

니플패치를 브래지어 대신 착용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니플패치 사용대상자를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과 같다. 브래지어는 가슴을 감싸는 여성용 속옷으로써 유방을 받쳐 주고 보호하며 가슴의 모양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고, 니플패치는 유두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엄연히 두 물건의 역할은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성들의 일명 '노브라'는 이전보다는 더 많은 여성들이 행하고 있지만 노브라 여성들을 보는 사회적 시선들은 아직까지도 탐탁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에 반해 남성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여성들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시선에 놓여 있다. 일명 '톡튀'나 '찌셔츠'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초래할 수는 있지만 그저 희화화되거나 익숙하게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는 이 점에서 니플패치를 남녀가 모두 착용하고 다니는 세상이 온다면 여성들은 브래지어의 압박감을 해소할 수 있고, 남성들은 희화화되거나 다른 이들에게 불쾌감을 초래하는 일이 조금 더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쩌면 니플패치 착용은 남녀평등 실현의 한 방법이자 역할로서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타인의 시선과 자신의 편안함을 절충하여 모두의 만족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니플패치의 사용 이유와 의미가 모호하다고 생각한다. 니플패치는 거의 매일 사용하는 것이므로 (일회용일 경우)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이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나간다. 또한 부착한 니플패치가 떨어지는 등의 불편함이 분명히 있음에도 기어이 노브라를 보완하는 대체품이 되어야 하는가?

애초에 노브라와 탈코르셋을 행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은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브래지어는 유방 보호, 가슴 모양 교정 등의 역할을 하는데 딱딱한 철사 등이 들어 있어서 불편한 사람은 정말 불편하다.) 그러나 니플패치를 착용한다는 것은(남성이든 여성이든) 어찌보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착용하는 것 아닌가? 니플패치를 착용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노브라의 대체품으로써 '덜' 불편하기 때문에 착용하는 것이고 니플패치를 착용하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아예 사용하지 않던 것(니플패치)을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불편해진다. 이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아이러니다.

나는 예전 사회보다 조금 더 자유로워진 사회가 되었기에 니플패치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이 토론 주제로써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될 수 있는 것 같다. 사회가 고정적 시선을 거두고 사람들 개개인의 자유를 더 폭넓게 인정해 간다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니플패치가 없어도 사회적 시선이 불편해지지 않는 자유로운 사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니플패치 사용과 그에 따른 여러 사회적 시선에 의한 자유 침해 문제들이 그 종점에 이르지 않을까?

〈이아현/진주여고 1학년〉

[대학생이 말하는 학과이야기] 우송정보대학 애완동물학과를 찾아서

동물을 사랑한다면 아주 특별한 선택을 추천합니다!



〈우송정보대학 애완동물학과 2학년 이소영〉

과거에 비해 강아지나 고양이, 햄스터 심지어 파충류까지 펫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이 각광받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애견 스튜디오, 애견 장례식장, 애견 캠핑장까지 등장하며 동물 관련 학과도 함께 잠재적인 미래 가치를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미래유망학과이기도 하고 아주 특별한 전공이기도 한 동물관련학과를 찾아 대학생 선배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우송정보대학 애완동물학부 동물관리과에 재학중인 2학년 이소영 이라고 합니다.

Q: 애완동물학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

A: 저희 학교 애완동물학과는 50여년의 전통을 가진 학과로 애완동물의 의료와 미용,

관리과로 분리하여 전공별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합니다.

Q: 애완동물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

A: 고등학교에서는 축산 쪽으로 배웠었는데 애견쪽도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이 학과를 선택하였습니다. 동물을 좋아하기도 하구요.

Q: 학과를 선택했을 때 주변반응은 어땠나요?

A: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학과이긴 하잖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에선 다들 응원해 주시는 편이었어요. 제가 원래부터 동물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친구들도 잘 할거라고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Q: 우송정보대학 애완동물학과만의 매력은?

A: 저희 과는 지상 5층의 애완동물계열의 단독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내에 동물병원, 애견미용실, 애견호텔 등 실제 애완동물 산업 현장과 같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서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문지식을 배우고 실습도 하고 있어요.

Q: 애완동물학과에서 하는 구체적인 활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저희 과는 애완동물관리 전공과 애견미용 전공으로 나누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1

학년 1학기에는 애완동물사양, 번식 등의 기초 분야와 훈련, 핸들러 등을 공통으로 배우고 후에 1학년 2학기부터 애완동물학과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애완동물관리와 애견미용 전공 중에 선택을 하여 전공에 맞게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기술에 대해 특화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Q: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애정이 있는 동물은?

A: 학교에 막 들어 올 때는 사파리에 있는 동물들(포유류)을 좋아했었는데 여름방학 때 아쿠아리움 실습을 해보며 뱀이나 테구 같은 파충류에 대한애정이 커져 파충류들이 좋습니다.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어요.^^

Q: 학과를 전공하면서 힘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A: 힘든 점을 굳이 꼽으라면 이론공부겠조. 다른 대학의 전공보다는 상대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동물들과 함께 하니 좋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게을리할 순 없어요. 이전에는 지나가는 개들을 보면 그냥 '귀엽네' 였다면 요즘에는 어떤 동물이든 '어, 저 개는 무슨 종이네' 할 수 있을 정도조. 주위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물어올 때가 많은데 제대로 대답해 주기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한답니다.

Q: 애완동물학과를 졸업하면 주로 어떤 직



업을 가지나요?

A: 의료쪽은 대부분 동물수의간호사 쪽으로 진출하구요. 미용쪽은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애견샵 쪽으로 취입이 됩니다. 관리쪽은 동물원, 아쿠아리움, 애견훈련소 등으로 가는 편입니다.

Q: 졸업 후 자신의 계획은?

A: 저는 축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항상 가고 싶어 했던 동물원과 아쿠아리움에서 일하고 싶어요. 잘 준비해서 꼭 들어갈 계획입니다.

Q: 애완동물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도 많이 늘고 반려동물 관련 직종도 많이 생겨나는 추세라 동물관련학과는 미래가 아주 밝아요. 전문직 종이자 미래 유망학과일 수밖에 없으니 추천드려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동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관심이 있다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들 화이팅입니다!!



강아지·고양이 반려동물 관심증가에 '동물관련학과' 경쟁률 치솟는다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 관련 시장규모 2023년에 4조6000억원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으로 인력 및 전문가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학과 인기도 함께 오르고 있다. 애견 스튜디오부터 애견 장례식장, 애견 캠핑장까지 등장하면서 반려동물과 펫(pet) 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덩달아 동물 관련 학과도 함께 뜨는 추세다. 동물 관련 학과는 수의예과를 비롯해 애완동물 학과와 동물자원 학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입시업체에 따르면 2019학년도 전국 수의대 10개교 수시모집 최종경쟁률은 28.38대 1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쟁률 30.98대 1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2014년도 18.41대 1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2018학년도 수의대 정시 평균 경쟁률도 11.61대 1로, 2014년 5.43대 1보다 2배 넘게 올랐다.

동물자원학과와 애완동물학과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다. 동물자원학과는 동물 관련 자원의 가공, 생산, 이용 과정을 배우는 곳이고, 애완동물학과는 동물의 미용이나 훈련, 간호 등에 대한 것을 배우는 곳이다.

경쟁률을 보면 건국대학교 동물자원학과와 2015년도 정시 기준 3.88대 1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6.6대 1로 높아졌다. 전남대 동물자원학과 3.13대 1→6.86대 1, 부산대 동물생명자원학과 1.91대 1→9.14대 1, 삼육대 동물생명자원학과 5.3대 1→15.8대 1 등 3년 전과 비교해보면 대부분 대학의 경쟁률이 올랐다. 내년에 원광대학교에 신설되는 반려동물산업학과와 수시경쟁률은 20.25대 1로, 교내 최고경쟁률을 기록했다.

애완동물학과가 주로 설치된 서정대, 신구대, 연암대 등 전문대와,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등 교육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들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고등학교에도 관련학과가 설치되면서 어렸을 때부터 동물에 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경북 봉화군 소재의 경북인터넷고등학교는 내년 반려동물학과를 신설하고 교명을 '한국펫고등학교'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경기 고양시 소재의 고양고등학교 애완동물관리과, 대전시 소재의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반려동물과정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늘어난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에 따른

우리나라 동물관련학과 설치 현황	
축산학과	경북대/ 경북도립대(전문)/ 경상대/ 연암대(전문)/ 충북대
동물자원학과	강원대/ 건국대/ 공주대/ 단국대/ 대구대/ 부산대/ 삼육대/ 상지대/ 순천대/ 신구대(전문)/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동물생명학과	경상대/ 강원대/ 경남과학기술대/ 상지영서대학(전문)/ 전북대/ 중앙대/ 한경대
애완동물과	대전과학기술대(전문)/ 동아보건대(전문)/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서정대(전문)/ 수성대(전문)/ 신구대(전문)/ 연암대(전문)/ 우송전문대(전문)/ 혜전대(전문)
수의학과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상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기타 동물 관련 학과	경북대-특수동물학과/ 공주대-특수동물학과/ 대구미래대(전문)-동물매개재활과/ 동아보건대(전문)-동물매개복지전공/ 동아보건대(전문)-동물간호전공/ 연암대(전문)-동물보호전공

관련시장 확장이 이유라고 해석하고 있다. 김명찬 종로학원 학력평가연구소장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와 관련한 직업 수요가 늘고 전망도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지난해 2조3000억원 규모였다. 연 10% 이상 성장을 거듭해왔고, 2023년에는 4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기존 사료나 동물의약품이 축산동물위주였다면 최근에는 반려동물제품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관련 제품출시나 창업도 늘어났다. 또한 훈련, 간호, 돌봄서비스 등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직업들이 생겨나면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 등 선진국처럼 더 많은 동물관련 일자리들이 창출돼 사람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특히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일 경우 관련학과에 진학해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재/ 진가희(중앙고2),전규원(경해여고2)기자]



필통 우체통은 진주청소년신문 필통의 독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필통 지면을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편지, 고백글, 여러분들의 학교나 생활속의 재미있는 사연을 함께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공감하고 기뻐하고 웃음을 줄 수 있는 많은 얘기를 남겨 주세요.

〈참여하시고 싶은 독자분들〉

필통 홈페이지(www.ifeeltong.org)에 따로 마련된 〈필통 우체통〉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매월 신문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eltong1318)을 검색해 톡으로 사연과 사진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사진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필통우체통

To. 3학년 8반 친구들에게



반가워 애들아. 수능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우리 반 친구들을 소개할게.

대표적으로 강원희라는 연예인이 있고 우리 반에는 마운틴 고릴라와 흑인이 살고 있어. 마운틴 고릴라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지 흑인이라 땀날 레이드를 뒀지. 흑인은 포켓티노와 야구하는 것을 좋아해. 정도호 스승님 성

대포사 잘하는 친구도 있긴 한데 많이 나대는 편이야. 오바 하는 친구가 있긴 한데 요새 정치에 관심 있더라. 이외에는 정말 포뎀적인 친구들이 많이 있지 할튼 원하는 대학 잘 붙고 수능 대박하나 파이팅~

-From. 정은중

To. 혜원, 다운, 주미, 연서, 예은, 도담~

진주여고 김혜원, 선명여고 정다운, 부고 박주미, 진양 우연서, 삼현 정예은, 최도담!! 다들 잘 지내지. ^^ 졸업한지 일 년도 안됐는데 뭘 날 언제 만나지~ 언제 놀까 생각 한다. ㅋㅋ 3학년 때 완전 재밌게 놀았는데!!! 우리 너무 만나기 힘든 거 아냐. ^^ 박주미 엽사 찍을 때가 었그제 같은데 벌써 일학년 반 지나간다.. ㅋㅋ 우리 여름에는 다 같이 모여서 다들 놀러가자. ㅋㅋ 작년에 롯데 워터파크 간 거처럼 한번 더 가자!!! 아 님 피씨방이라도 가자!! 이거 보면 단독에 톡 좀 하고!!!! 애드라 사랑한다!!



-From. 사대부고 김연경

To. 정혜원(헬멧)

우리 다른 학교라서 자주 못 볼 줄 알았는데 시험기간에 독서실에서 만나고 가끔 우리학교도 찾아와주셔서 자주 만나는 거 같다. ㅎㅎ 그래서 난 좋은데 왜 만나기만 하면 니랑 이소람이 같이 나한테 목하는지 모르겠음. ㅋㅋ 뭐 난 대인배니까 다 이해해 ㅎㅎ

요새 중학교 생각 너무 많이 난다. ^^ 나 중학교 때 뭘 일만 있으면 나한테 얘기 했는데 뭘 잘 들어주셔서 고마웠던 거 알지? 근데 나 중학교 땐 공부 하나도 안했는데 고등학교 가고 나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좀 신기해. 열심히 해서 전교 등해 귀엽음 ㅎㅎ 근데 고등학교 오니까 공부랑 이것저것 할게 너무 많은 것 같다. 힘들 때 마다 니랑 애들이랑 땀날 땀 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만 남. ^^

정혜원 힘든 일 있으면 다 나한테 말해 알겠지? 내가 다 들어줄게 그리고 이번에 니가 공부한 만큼 시험 잘 칠 거야 걱정 하지마 ㅎㅎ 시험 끝나면 놀러가자 사랑해 평생친구 헬멧~

-From. 강인원



To. 난쟁(여), 난쟁(남)

난쟁이들아! 니들 행복이다. 3년 정도 됐나? 엄청 이상하게 친해진 거 같은데, 한명은 목하다가 친해지고 한명은 처음 보는데 간식 빼먹어서 미친놈인 줄 알았는데, 암튼 니들이 나 놀리는 거 재밌어하고 나도 니들 놀리는 거 재밌었으니까 오래오래 서로 약 올리자! ㅋㅋ

-From. 준희



To. 한재친구

선우야 나 누구지? 니 삼성아파트 절친이야~ 김한재 데리고 수영장에서 야구하던 거 기억나? 그 때 개 재밌었어. 레알 알몸 아저씨부터 분노조절 최유빈까지 개극함. ㅋㅋ 지금 생각해 보면 웃기지 않냐. 계단에 공 던지고 분수대에서 축구하고 ㅋㅋ 땀날 담 넘어가면 공 주우러 다 넘어 가지고 복식관 열쇠 빌리러가고 진짜 지금 삼성 가서 해보고 싶음.

니 요새도 한재랑 연락하냐. 아주 그냥 베프네. 근데 나 니 데리고 갈데 개 많음. 일단 삼성 탁구장도 가야함 근데 한재 데리고 니네 집 갈 건데 니도 오고 싶으면 따라와라. 예고가서 민수랑 지섭이 말 잘 듣고 잘 지내렴. 이번 주 일요일 사친가기로 했는데 귀찮아서 못 갈듯 ㅎㅎ 답에 같게 그때까지 한재랑 놀아라. ^^

-From. 깡

To. 이소민

안녕 소민아. 이렇게 편지 써 보는 건 처음이라서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다. ㅎㅎ

잘 읽어줘. 우리 중1 때 반 특에서 얘기하다가 친해지고 그 후로부터 늘 같이 다녔던 거 같아. 그래서 어딜 가든 같이 가고 학원도 같이 다니고 그랬지. ㅋㅋ

오늘거리지만 항상 힘들 때, 즐거울 때, 슬플 때 곁에 있어주고 응원해주셔서 고마워. 특히 난 중2 때 제일 힘들었던 거 같아. 그냥 방황도 많이 했었고 뛰 연애하면서 힘든 것도 많았고 그래서 지책 할 때 마다 너가 나 위로해 주고 나를 아파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목도 해주고 ㅎㅎ 속이 시원했다. 중학교 때 늘 같이 다니다가 이제는 고등학교도 같이



오고 같은 반은 아니더라도 옆 반이고! 우리 2학년 때는 같은 반 되어보자. ^^

더러운 내 성격 받아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같이 지내줘! 내가 많이 아껴

-From. 박예림

To. 대장마라탕 공주



나는 우리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당. ^^ 눈치껏 살자.

그리고 보니 우리 넷에서 찍은 사진이 없어. 시험 끝나면 같이 유등은 못 보러 가도 마라탕 먹으러 가자. ^^ 싸움은 뽀로로, 화해는 마라탕으로 ㅎㅎ 지금은 마라탕에 음료수지만 나중 성인 됐을 때 마라탕에 칭따오 먹자! 그러니까 지금 각자 열심히 살자~

-From. 핑거 망경 마라탕 친구들

To. 이지미니

하이 지미. 어찌다 보니 편지를 쓰게 되었군! ㅋㅋ

우리 알게 된지 1년 반 정도밖에 안됐지만 니가 진짜 최고야. 니도 알지? 앞으로 백만년을 함께 하고 싶어~ 힘든 일이 있어도 난 다 들어줄 준비 되어 있으니 전부 털어놔야 된다. 알겠지?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리고 거제 ㅎㅎ 까먹지 마라! 사랑해! ^^

-From. 다름



[정리/ 전시은(진양고2)기자]

2019

**필통과 함께하는
청소년 자기성장 캠프**

사청소년문화공동체 필동이 2019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하나로
진명여중, 진곡여중, 진곡중학교, 진곡중앙중, 진곡중앙중
5개 중학교 학생들과 1박2일의 멋진 여행을 떠납니다.

- ▶ 참가대상
해당 5개 중학교 학생 36명, 인솔 교사 6명
(교육복지사 및 보건교사)
- ▶ 오리엔테이션 : 2019년 10월 2일(수) 오후 4시
진주 중앙중학교 강당
-참가 학생들의 인사 및 소개, 친해지기/
복불복 조 추첨식
- ▶ 본 캠프 : 2019년 10월 11일~12일
(금~토/1박 2일) 장소는 비밀^^
- ▶ 주요 프로그램 : <미션임파서블> <콜레방아아>
<캡파이어> <신문만들기> <시상식> 등

6개조로 편성된 학생들이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중간 3곳의 경유지를 찾아 가면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 외에도 1박2일 동안 공동체 놀이와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공이고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더욱 행복해 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멋진 '자기성장 캠프'가 될 것입니다.

디자인의 모든 것!
노는아이! minijebi

디자인 컨셉에서부터 견적까지 모두 상담해드립니다.

포스터 / 전단 / 명함 / 스티커 / 리플렛 / 팜플렛 / 봉투 / 현수막 / 배너 / 쿠폰 / 메뉴판 / 간판 / 카페 / 블로그 / 홈페이지 디자인 / 로고제작(CI, BI) / 파워포인트제작



필통과 함께하
주시는 분들

이영균 이영만 이영주 이영준 이영호 이우기 이옥민 이우정 이윤자 이윤자 이윤경 이윤희 이은경 이은영 이은영 이은주 이은하 이인자 이재석 이재승 이재현 이장숙 이장숙 이장현 이장희 이종원 이주미 이진희 이창욱
이창석 이한진 이해숙 이향숙 이현미 이혜영 임경섭 임경옥 임미경 임병선 임병재 임 석 임소정 임수연 임재광 임채자 전상훈 정경숙 정교은 정귀란 정기섭 정기훈 정길란 정동균 정명교 정미란 정미숙 정미영 정민경 정봉근
정성희 정성령 정서윤 정승민 정승환 정연근 정연호 정영문 정우영 정은영 정영숙 정의환 정재윤 정정환 정종근 정종혜 정주용 정창교 정철호 정한용 정형환 정현대 정형숙 재주는 조경민 조남식 조미란 조복춘 조소환 조연향
조영주 조은미 조영재 조은수 조은희 조일수 조재선 조재우 조진규 조찬진 조현규 조현우 조혜정 주동민 주선경 주정희 지종근 진미경 진애희 진옥순 진재필 진해숙 차명지 차영석 채난아 천규영 천수인 천윤권 최경미 최경희 최 미
최상일 최성미 최선재 최현주 최연주 최유호 최영미 최정민 최치원 최진희 최현옥 최희성 추수현 탁정주 하기용 하병필 하윤지 하치상 하해경 한기민 한순필 한형도 허귀용 허문복 허윤정 허정필 홍선인 황기민 황성수 황수영 황진희
유성영 김병용 최진 박기진 김남우 김민정 박태호

필통지정 배부처 | 필통은 진주시 관내 모든 중, 고등학교에 무료로 배부 됩니다.

(신안-평거동) 아이쿱생활 신명점, 진주문고, 행복중심생활, 여성민주회, 탑마스터점(D-BOX), 형평가점사업회(상봉동) 문학당서점, 형설서점(시내권) 아름다운가게, 대양서적, YMCA, 서경방송, 다원, 죽향(칠암-강남동) 커피포스트, 동훈서점, 안카페, 몽클, 단디커피, 모두의아지트, 소문난서점(도동) 진양서적, YMCA, 달팽이도서관, 드림문고, 학문서점, 마하도서관(호탄동) 진주시민미디어센터

**필통네모
로직퍼즐**

독자여러분! 필통 네모로직 퍼즐 퀴즈를 풀어 완성된 퍼즐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필통 홈페이지(www.ifeeltong.org)에 마련된 <네모네모로직 응모하기> 게시판에 올려 주시거나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eltong1318>을 검색해 톡으로 전송해 주세요.

[이번 호는 2019년 10월 19(토)까지 접수분에 한해 추첨합니다]

보내주신분들 중 추첨을 통해 32분을 추첨해 2명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을, 또 30명에게 문화상품권 5천원을 각각 드립니다.(변동가능) 당첨되신분들은 필통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다음호 신문에 게시합니다.

※ 네모로직이란?

간이 있는 숫자퍼즐로, 윗쪽과 왼쪽에 있는 숫자들 만큼 칸을 칠해 그림을 완성시키는 퍼즐이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의 숫자가 가진 규칙을 활용해 한 칸 한 칸 색칠해 그림을 완성시키는 퀴즈입니다. 공부하다 잠 올때,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전해 보세요. 필독으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무지 높은 것 아니죠^^

〈로직의 기본 규칙〉

- 문제의 위와 왼쪽에 있는 숫자는 해당열 안에서 연속해서 칠할 수 있는 칸의 수를 의미한다.
- 한 열에 여러 개의 숫자가 있는 것은 숫자의 순서대로 숫자만큼 칸을 연속해서 칠함
- 칠해지는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반드시 한칸의 이상의 공란이 있어야 한다.

[illegible]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1등 - 문상 1만원(2명): 전유빈(경해중 1-6)/ 허현중(동명고 3-8)
2등 - 문상 5만원(3명): 류지연(삼현중교 3-8)/ 이이형(진주여중 3-1)/ 정용성(동명중 2-6)/ 박자현(대야중 2-2)/ 문미슬(봉원중 3-1)/ 아준(개양중 2-4)/ 하지현(진주중 2-7)/ 윤소아(진영여중 3-5)/ 류주안(대야고 1-4)/ 이호진(대야고 2-7)/ 홍예나(경해고 2-2)/ 진지연(경해고 1-9)/ 서준철(천안고 2-4)/ 권보민(동원고 1-7)/ 이수연(동명고 1-8)/ 이승주(동명고 2-7)/ 하지훈(진주여고 2-2)/ 윤자현(동명고 1-8)/ 김민성(진주고 2-7)/ 이다경(진주고 1-4)/ 안연우(사대부 2-2)/ 류예진(제일고 3-1)/ 강명진(제일고 3-4)/ 이현선(천안여고 1-1)/ 김은정(경해고 2-5)/ 연수(제일고 1-10)/ 조아현(제일고 2-4)/ 정태경(동명고 2-10)/ 정원철(동명고 1-2)/ 김승수(경해고 3-3)/ 최원재(삼현여고 2-9)/ 고인애(삼현여고 3-7)/ 정성무(진주고 1-2)/ 강창환(제일고 2-5)/ 이예림(경남정보고 1-2)

※ 당첨된 분은 학생기자 또는 선생님이 문화상품권을 전달해 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만일 받지 못하는 경우 필통으로 연락 주세요 (대표전화: Tel 070.8628.1318 / HP 010.3881.8808 전화&카톡으로 메세지도 남겨주세요)



한살림 경남은
필통과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후원합니다.

진주 iCoop 생협

필통을 후원합니다.
필통을 진주의 자랑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FEELTONG 

(우) 660-980 경남 진주시 남강로 720 (옥룡동, 2층) / 1999년 4월 9일 창간 / 등록번호 진주라00001(월간) / 발행인 인쇄인 대표이사 이혁 / 편집인 편집국장 김가희
전화 070-8628-1318 팩스 0303-0957-1318 / 홈페이지 www.iteeltong.org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